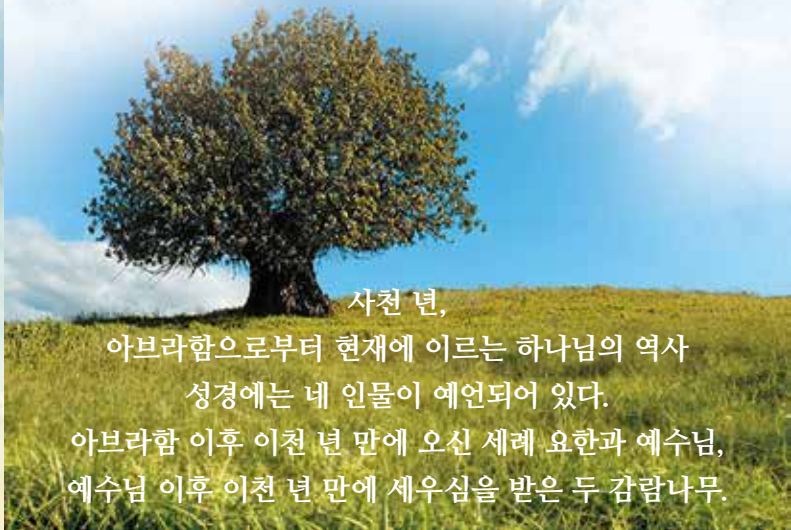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12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2년 5월 1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http://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mailto: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74-8

ISBN 978-89-6449-223-9 (세트)

---

에덴의  
메아리 12



저자 (1997년 당시)



**상천에덴야구장.** 성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축구장 옆에 야구장이 마련되어 있다. 외부에서도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전폭포 커피숍.** 성전 옆에 마련된 커피숍은 옥상에서 폭포가 흘러내리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차를 마시며 폭포수를 감상할 수 있다.

# Prologue

## “진리로 무장하자”

진리는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의 다림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맞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좁은 소견으로 이 진리를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나 많은 세칭 인류의 스승들이 손수 진리의 광맥을 캐려다가 번번이 실패했던가? 이것은 우리의 정신사(精神史)가 입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인간 두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리와 비슷할 뿐, 결코 진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비 진리에 어떻게 우리가 한 생애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리의 현주소는 성경

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느 책들과 달리, 아무나 읽어서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불리 지성에만 의존하여 답을 얻으려고 하면 점점 미궁에 빠져들기가 일쑤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영의 눈이 다소나마 뜨이지 않으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항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경 해석은 성령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 2천 년 역사상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칼뱅, 발트, 니버... 등 쟁쟁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해명하려고 무던히 애써 왔지만, 아직도 왈가왈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성경 66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그러하다. 심지어 문제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적당히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날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

초대교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산이 200번이나 변했으나 기독교는 거두절미된 채, 의신득구(依信得救)로 요약되는(롬1:16) 바울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울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율법에 명시되어 2천 년 동안 대대로 지켜온 할례를 폐지

시켜, 구약 시대를 명실 공히 마감하고 범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한 위대한 주의 종이요 또한 대신학자였으나, 주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2천 년 동안 무수한 기독교 신자들이 영혼의 구원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믿으면 그냥 되는 줄로(요3:16) 막연히 혹은 안이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은 한마디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님은 이런 폐단을 예견하시고 구원의 어려움을 누차 경고하셨는데도 말이다.(마7:13, 21, 23) 믿는다고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계7:14)

이러한 와중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수가 밝혀진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요16:13)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세상에 나온 열두 권의 설교집에 점점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설교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행되겠지만, 한 목회자의 설교집이라기보다는 바울의 복음(롬16:25)과는 또 다른, 오늘의 새 복음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편의상 ‘이영수 신학’이라고 불러 ‘바울 신학’과 구분한다. 두 신학이 똑같이 주의 가르침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사명이 다른 만큼 내용



도 판이하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바울 신학은 인간을 위한 기독교를 주장하고, 이영수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를 주장한다.

둘째, 바울 신학은 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2천 년 전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영수 신학은 주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오늘의 예수님을 증거한다.(히5:10)

셋째, 바울 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지만, 이영수 신학은 마귀를 하나님의 강적으로 단정한다.(계12:10, 16:14)

넷째, 바울 신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보지만, 이영수 신학은 만유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행3:21)

다섯째, 바울 신학은 믿음을 강조하고, 이영수 신학은 은혜를 강조한다.(계2:7, 21:6-7)

여섯째, 바울 신학은 기독교의 윤곽에 대해 해명하고, 이영수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일곱째, 바울 신학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치중하고, 이영수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데 치중하고 있다.(계14:16)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눅4:14) 감람나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감람나무 시대로 접어든 것이

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예언된 인물로(슥4:12-14, 계11:3-4),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슥4:6)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에 부합되고 이에 상응한 말씀과 권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는 무너진 앞선 감람나무 역사를 이어받아 갖은 역경 속에서 주의 피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발등상 시키기에 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그에 의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성경의 베일이 벗겨져 기독교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말씀(진리)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며, 그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계2:7)에 귀를 기울일지이다.

1998년 8월 최 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진리로 무장하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 01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22
- 02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34
- 03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42
- 04 구원이란 무엇인가? 50
- 05 기드온의 교훈 57
- 06 메시아 시대와 감람나무 시대 65
- 07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74

## Part 02.

### 여호와와 뜻을 높이 받들고

- 08 보혈의 은총 82
- 09 그리스도의 위상 95
- 10 제사와 추도 예배 109
- 11 죄를 두려워하라 118
- 12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온 발자취 131
- 13 마귀의 계급에 대하여 143
- 14 엘리야와 세레 요한 153

## Part 03.

### 소망의 닻을 올리고

- 15 믿는 역사와 이루는 역사 164
- 16 모세 율법과 자유 율법 177
- 17 신앙은 선한 싸움이다 188
- 18 안찰에 대하여 203
- 19 이긴자의 권한 208
- 20 하늘 군병의 역할 216



*Part 04.*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 21 은혜의 다림줄에 대하여 232
- 22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243
- 23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253
- 24 선악과와 생명과일(1) 262
- 25 선악과와 생명과일(2) 279
- 26 선악과와 생명과일(3) 290

*Part 01.*

#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1.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 2.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 3.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 4. 구원이란 무엇인가? · 5. 기드온의 교훈 · 6. 메시아 시대와 감람나무 시대 · 7.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 Chapter 01.

#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눅20:44)

이 말씀은 주께서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신 한 대목입니다. 주님 당시로부터 약 천 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 3천 년 전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시대에 역시 우리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우 감회 깊게 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께서’의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 앞으로 태어날 그

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말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사110:1) 하고 주님이 다윗의 말을 소개했지만,(마22:44)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왜 앉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윗이 기록한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존재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마26:64)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권세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때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사110:4, 히5:10) 그 이후에 하실 일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지상의 이긴자를 통하여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고전15:28) 주님이 모든 원수를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을 하시지만(고전15:25) 마귀를 발등상 시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복귀시켜 놓게 되면, 주님도 당신의 자리를

내놓고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민을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배웠고, 따라서 그렇게 알아 왔고, 이 시간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20:28)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까닭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대속하시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마귀를 발등상 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5:8-10)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도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인데, 현재 그 마귀가 발등상 됐습니까? 안 됐습



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시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등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얘기하면 제 말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초비상수단을 쓰셨는가? 당신이 계획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변지수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된다.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에 솔깃한 소리입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관이 사실이 아닐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실이 아닌가? 그에 대해 제가 앞으로 여러 시간을 두고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는 식구를 데리고, 엄청난 수의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 포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다.”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sup>(시</sup>

89:3-4, 요7:42) 다윗은 자기 혈통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그 위대한 메시아가 등장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메시아를 만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도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마 13:17)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핵심이 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39)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리니.”(고전15:25) ‘불가불’이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 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발아래 둔다는 말씀은 복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발등상 시키게 되면 주님은 왕 권세를 하나님께 내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만유의 주가 됩니다.(고전15:28)

주님은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끝나려면 마귀가 발등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발등상

되려면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장차 그렇게 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발등상 시켜야 하는 소임이 그때는 아직 주님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영광의 보좌를 뜻합니다. 우편에 앉으시려면 주님이 이기셔야 하고, 이기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만 아는 겁니다. 주님이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입니다. 즉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행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계5:5)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대가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 쥐시고 여호와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계5:7)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실 일은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시 110:1)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왕 노릇하면서 이런 역할을 할 거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다윗이 예언한 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멜기세

텍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발등상 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계5:5)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극비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마귀를 진멸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실제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직접 나서서 움직이겠는데,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주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앞에서 왕은 하나님인데, 주님이 불가불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합니까? 발등상 될 때까지입니다.(고전15:25)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의 이 구절을 봐도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는 겁니다. 2천 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영수 너는 어떻게 아느냐?”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보고 들은 사람이니까 아는 겁니다.(계2:17)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실 때부터는 책임이 더욱 막중

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2천 년 동안 지대한 관심 속에서 민족을 초월하여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을 살피신 겁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켜야 할 이긴자를 물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긴자의 역할을 할 인물이 두 감람나무다 해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계11:3-4)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주님은 왜 감람나무로 지칭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을 진행하는 주님께서 그 감람나무에 대해 재차 언급하신 겁니다. 그 감람나무가 즉,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주님의 권한을 대행할 자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3:21)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좌는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한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권한이 이긴자에게 갔다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일을 이긴자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는가?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로 받은 권한을 이긴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명은 주지 못합니다. 이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권세를 줘야 합니다. 이긴자가 받고 싶

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요10:37-38)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인간 이영수는 우습게 봐도 좋지만, 내가 성서를 얘기하고 그대로 행하거든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게는 마귀를 발등상 시켜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 가서서, 근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왕 권세는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일곱 교회의 신자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내 권세를 맡을 만한 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2천 년 동안에 본격적으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을 못했던 겁니다. 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권세를 주님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 권세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권세를 맡길 수 있는 이긴자가 나타나야 마귀를 본격적으로 발등상 시킬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아,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본격적인 작업은 하

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일은 고사하고, 마귀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마귀가 발등상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논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도 없고, 따라서 신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깊이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따른 겁니다. 그 뜻이 뭐냐?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잃었던 에덴동산을 되찾고 만유가 회복됩니다.(행3:21) 마귀가 발등상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속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신랑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21:2) 신랑, 신부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신랑하고 결혼을 하는 신부는 호적에 오르는데, 이 호적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계21:27) 어린 양하고 이름이 같이 오른다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녹명된 자들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22:4)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 수가 이루어지면 마귀와의 대접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위해 천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집을 ‘거룩한 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계21:2)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과 육적인 결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아직 살림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살림을 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계19:9)고 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받을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더러 어찌면 그렇게 깊은 말씀을 거침없이 잘하느냐고 감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생이 영화를 봐도 그 줄거리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나와도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은 무엇을 발등상 시켜야 합니까? 마귀를 발등상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안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손수 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맡아서 움직일 이긴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천 년이 지나서야 이긴자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힘들어도 이렇게 해 다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일반교회하고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은 증거해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긴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즉 받는 자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계2:17)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 ‘흰 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오늘날까지 갖은 핏박 속에서도 버티는 것은 그 돌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흉내 내도 그것 하나는 흉내를 못 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자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나, 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과 호흡을 맞추어 하고 있는 일이 남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일’(눅4:10)이라고 우습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한편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갖가지로 가로막는 겁니다.

## Chapter 02.

#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감람나무의 역사는 전에 한 번 망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벅차고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3자에게는 당연히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주의 종도 인간이므로 이왕이면 인기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담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였으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고, 그가 속한 레위 지파에서는 대대로 제사장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불에 타 죽었습니다.(레10:1-2)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장을 제쳐놓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화근이 되어 버림을 받았습니다.(삼상13:9-14)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하면, 번번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틀어지곤 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싶어 시작해 보면 예상과는 달리 일이 꼬이고 빛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타격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했습니다.(삼상15:22)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진 까닭은 거의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면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기가 죽어 머뭇거

려도 안 됩니다. 일단 위에서 지시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르는 양떼들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느냐, 이 조정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하는 저도 달갑게 생각되지 않고, 따라서 듣는 사람들도 거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이긴자 감람나무 역사에 몸을 담아 한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기성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내 설교집을 감명 깊게 보다가, 선악과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했다는 말 한마디에 걸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가 틈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에게는 전지전능하지만, 신이 신을 상대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마귀도 신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지만, 저는 그것도 가르

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는 경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상대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경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주의 종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막힐 것이 뭐 있습니까? 안 통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신도 인간에게 전지전능합니다. 그리하여 그 신과 이 신이 대결할 때에는 인간에 대해서처럼 어느 한쪽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에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기록했지만, 계시록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흰 돌’에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그 ‘흰 돌’ 위에 기록한 내용은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계2:17)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과 신끼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을 영적인 셋째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계16:16)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쳐 왔지만, 신과 신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계시록에 대해 간간이

나름대로 연구해 왔으나, 계시록은 인간이 머리로 연구하여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나타나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중요한 내용은 마귀와의 작전상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나 계시록을 수박 겉핥기만 하고 그 알맹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주인공이 처음으로 뚜껑을 열어 보인 겁니다.

지금은 이 신과 신의 3차 전쟁에 대비하여 양 진영이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쟁에는 이쪽에서도 신이 등장하고 저쪽에서도 신이 등장하는데, 저쪽에서 괴수(용)의 아들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싸우러 나갈 때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계14:1) 그래서 이긴자에게 지상에서 이 군사의 수를 채워 달라 이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할 사람을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 ‘이긴자’ 또는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쌍방의 힘에 격차가 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은 무력이 월등하고 한쪽은 빈약하다면 싸우나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이때에는 군말 없이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은 힘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여 일본에게 항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일본을 상대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

니다. 청일, 러일 두 전쟁에 이긴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나라는 꿈쩍 못하고 일본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의 힘이 월등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을 받아 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은 대단히 냉정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밀어내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자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감쌉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는 그 사람을 범죄하게 하여 내보냅니다.

노아가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아가 ‘우리 여덟 식구가 어느 세월에도 그 큰 배를 만드느냐?’ 해서 세상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단시일에 왕창 배를 만들었더라면 노아는 제 명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덟 식구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면 끝까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왔는데,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느냐 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맨주먹으로 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고 지시하시면 “예!” 하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여건은 어떠냐?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권력을 움직여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차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알곡성전 부지만 해도 여러 종교 단체에서 사러 왔었으나, 전직 대사인 주인이 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할 무렵에 마침 땅 주인이 돈이 필요하여, 귀국하여 한 주일 머무는 동안에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곡성전까지 오는 길을 내기 위해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판다.”라고 버티다가 결국 그 사람 눈에 흠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신은 영체이고, 인간은 육에 매여 있습니다. 신은 우리를 꿰뚫어 보지만 우리는 신 앞에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과 신이 우리를 사이에 놓고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어느 신에게 가담하느냐에 따라 한쪽을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은 인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쓴 회고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면, 미국은 당신의 나라에 대한 원조를 보류할 수밖에 없소.” 하고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살아갔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소련에 붙겠소.” 너희들은 한국에서 손을 떼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 기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이 속개되었는데, 이 대통령이 끝내 버티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뒤통수에 대고 “꽤 씩한 놈!” 하고 영어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때의 일을 상기하여 회고록에 이 박사를 가리켜,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대통령을 욕하다니 배포가 이만저만 센 사람이 아니라고 칭찬했습니다.

강대국끼리 겨룰 때,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16:14)**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때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의 종은 지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실제로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일반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 Chapter 03.

#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나는 요즈음 영의 세계에 대해 한 단면이나마 간간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히 논한다는 것부터가 일반 교역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이르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따라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면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 하나님께 그 사정을 기도로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령의 집요한 훼방에 대해 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악령의 공작이 인간에게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 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하나님이 앞일을 보여주시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새 복음은 열한 권의 설교 집에 나와 있으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 일반교회가 사이비로 딱 집어서 단정하지 못합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집은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역사는 만나의 시대이고, 나중 역사는 흰 돌의 시대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 하루에 죄악을 제해 버리는 역사(슌13:9)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단12:4) 오늘날,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우리 역사에 부르시고, 주의 종은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감람나무 역사에 함께하셔야 하는데, 앞선 역사가 주님을 배척하여 주께서 거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감람나무 역사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성교회에서 손을 떼었습니다.(슌4:14, 계11:6-7) 앞선 역사가 한창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줄 때, 그 주인공이 일반교회의 십자가 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설교를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실제로 일반교회의 교인을 안찰하면 이마에 흑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교회를 떠나신 주님을 앞선 역사에서 배척하니, 주님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었던 나중 역사를 서둘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오늘날까

지 20여 년 동안 주님의 피권세를 이어받아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계2:27, 3:21 참조)

주님 당시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는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 그 이상의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다가, 잘못을 평생 뉘우쳤습니다.(딤후1:15) 하나님의 역사는 감람나무가 등장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앞선 역사가 얼마나 위력을 떨쳤습니까? 능력이 대단하였습니다. 이슬이 쏟아지고, 향취가 진동하고, 사단이 쫓겨나고,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역사가 주님께 오히려 불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어지는 역사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결코 나를 내세우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그때를 대비하여 여러분에게 자리를 확보해 드려야 합니다. 각자가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계19:8) 주의 섭리 가운데 동참했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고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100%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

인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사도 시대에 잡히기만 하면 모진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양 떼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망이 이생뿐이라면 그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고전15:19) 즉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는 같은 심정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육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일평생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뜨겁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하늘나라에 대해 질문하면 딱 부러지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기한 체험만 하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기뻐하고 열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소상하게 배워서 새로운 신앙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총결산하는 내용이 담긴 요한 계시록을 단계적으로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린애와 같은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도와드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삿5:23) 장성한 자식은 부모의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목표가 다르고,

믿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편히 사는 그에게 억지로 고된 방랑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고생문이 흰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일하러 나온 종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마귀의 정체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베일에 싸인 음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마귀에 관해 나만큼 자상하게 가르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때에는 마귀에 대해 깊은 내막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과 싸우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의 실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모르고 어떻게 덮어놓고 마귀와 싸웁니까? 주님이 저에게 악령의 세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1:22)** 이 말씀은 자식을 많이 낳아 잘 먹고 잘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용두동)에는 선농단(先農壇), 즉 왕이 선농제를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작부터 주의 종은 마귀를 상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1945년에 미국의 헬스 대령이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을 항복시켰습니다. 당시 원폭의 비밀을 엄수하여 태평양 사령관도 몰랐습니다. 악령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략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내세를 중요시하여 이승을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마 10: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바울은 내세에 대한 확증을 얻고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딤후4:8) 오늘날 우리 역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사후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신앙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죽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후의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세계에 가 본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이 뼈가 모이고 살이 붙는 광경을 보았다 하여(겔37:4-5) 죽으면 영이 떠났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온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와서 사후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만, 주님도 상세한 설명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밝혀 나가는 것이 이긴자가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이만큼 차원이 높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20년을 따르다가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할지라도 이 역사는 착착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계에 저도 가야 하고 여러분도 가야 하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생애가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면 주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조한 겁니다. 모르면 초조할 게 없습니다.

일반 목회자와는 달리 저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대우받는 자가 되게 해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실에 매여 영의 세계의 귀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영의 세계



를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부터가 어찌다 주의 종이 되어 영의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 Chapter 04.

#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끝나냐, 아니면 시작이냐? 시작이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한 제자가 부친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마8:22) 하고 제자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도를 취소하고 즉시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요11:35)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동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제자가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마리아

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는 주님 자신이 행차하시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요11:4)

인간이 숨을 거두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요11:11)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었다는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뜻은 아침에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요6:63)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육체를 ‘장막’(벧후1:14)이라고 하고, ‘겉사람’(고후4:16)이라고도 하여 ‘속사람’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레17:11)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피 채로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레19:26)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창3:19)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에서 취한 육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늘로 가는 건 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말한 ‘겉사람’이 육이라면 ‘속사람’은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은 어디에 속하느냐?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의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창2:7)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는 바로 영입니다. 혹은 혼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 열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안에 영이 거하게 됩니다. 이 영은 인간에게만 거하고 짐승에게는 거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곧 영이 되었다면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영은 핏속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가 돌지 않고, 핏속에 있던 혼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 곧 혼은 불완전합니다. 왜? 조상이 범죄하여 원죄(롬6:17)와 유전죄가 우리 핏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인간을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였고(시51:5)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마15:19)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한 생명체가 되면, 어떤 신이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본인은 이것을 모르지만, 신이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이 인간의 핏속에 있는 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찰을 처음 받을 때 몹시 아픈 것은 대대손손 더러워진 핏속에 있는 혼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혼과 신의 영이 같으면 조용하고, 상극이면 충돌합니다. 인간이 만일

성령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면 성령과의 연결이 쉽습니다. 반대로 악령의 영향 속에 태어난다면 악령이 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당집 자식은 무당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혈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맡게 하여 혈통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피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멈춘 핏속에 혼이 그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더러운 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시51:5) 그 혼이 더러운 채로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혼이 죽기 전에 깨끗해지면 빛의 세계, 곧 하늘나라로 가고, 깨끗하지 못한 혼으로 남게 되면 어둠의 세계, 곧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면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더러워진 인간의 혼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요14:6)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해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시16:10)

인간의 혼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더럽혀진 채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혼이 열 개의 죄에 의해 더럽혀진 채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열 개의 죄를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인군자라고 해도 열 개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죄는 한평생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 개의 죄 때문에 음부로 가야 합니다. 그가 한평생 짓지 않는 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조상의 허물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속죄가 되어야 합니다. 속죄가 안 되면 영적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었다고 합시다. 이 아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조상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죄의 오염을 씻어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한 초비상 수단이었습니다. 그 피권세로 인간을 죄에서 건져, 앞으로 다가올 영의 마지막 싸움(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그 피권세를 맡아 역사할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출현이 지연되어 주님은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 오셨습니다.(계

7:14, 20:4) 그러다가 이긴자가 나타나자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권세를 맡겨(계2:7, 26, 3:21) 하늘 군병의 수가 차기를 다시 말해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마22:44, 히10:13)

이긴자의 특권이 뭐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직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긴자의 역사에 동참하면 누구나 하늘 군병이 되느냐?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서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음부에 가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마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멸망 받은 후, 심판을 거쳐 건짐을 받게 됩니다.(계20:15)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심장이 멎는 순간에 권사님의 혼은 떠납니다. 이때 그 권사님이 갖고 있던 혼과 성령이 어느 정도 교류되어 새로운 생명체로 탈바꿈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면 주의 종이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수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큰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해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고 가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1년에 두세 차례는 주의 종을 통하여 안찰을 받아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도말 받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면 좋은데, 세상에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쏟아 버립니다. 다음에

안찰을 받고 또 그 은혜를 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를 극대화하고 죄의 빈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을 맡긴 겁니다. 이권 지상 최대의 권한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백부장 고넬료에게 줄 은혜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행10:31-32)

그런데 이긴자가 나타나면 베드로에게 맡겼던 권세를 이긴자에게 맡겨 주십니다.(계3:21) 이걸 누가 알 거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1,200만이나 됩니다. 그들 중에는 철야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는 신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슬’이 뭐고 ‘생수’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으면서도 예사로 알지만 사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 Chapter 05.

# 기드온의 교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주 섭섭함을 느끼시고 또 배신도 당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 하셨건만,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등을 돌 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민의식은 강하여 하나님의 백 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저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 그 선지자를 해치고 잡아 죽이기가 예사였고, 심지어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므로 이방인을 대할 때와

는 크게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특별대우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들에 대하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왔다.”(마15:24)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으려 애원하자, 주께서 그 믿음이 가 록하여 비로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대우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창17:6-9) 그래서 잘 하든 못하든, 믿든 곱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범 죄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가하면서도 꾸준히 인도해 주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어 역사하신 기간은 대체로 40년이었습니다.(삼상4:18, 왕상2:11, 대상29:27) 오늘날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 40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활약한 하나님의 종의 한 시대에 불과 합니다. 그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을 드 렸을까, 따져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2천 년 동안 수십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활약한 업적을 다 합쳐도 별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 라성 같은 종들이 지나갔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세 운 공로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인 미디안의 침입으로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집과 농지를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가 굴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면 멋대로 살고, 어려우면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운 종, 즉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큰 지파의 백성 중에서 세우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필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는 큰일을 맡기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의아하게 생각하자 지팡이 끝을 내밀어 무교전병을 불사르는 기적을 행하여 자기의 정체를 확인시켰습니다.(삿6:21)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였으나, 기드온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자기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둘 터이니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땅은 마른 채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사로 세워 미디안 군을 물리칠 것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았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삿6:38)

그래도 기드온은 아직 의심이 완전히 가지지 않아, 내일 아침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땅이 젖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세우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겠다고 기도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그대로 되었습니다.(삿6:40)

그때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의 장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정도의 군사라면 미디안 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군사를 모집했구나. 잘 했다.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이리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나?”

“네, 3만 2천 명입니다.”

“그들 중에는 있으나마나한 놈들이 많아. 추려서 돌려보내도록 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적을 물리치면 내가 도와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냐?”

그래서 기드온이 연약해 보이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1만 명의 군사로 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1만 명도 많으니 더 추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출 방법까지 지시하셨습니다. 즉 1만 명을 개울에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할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

시는 자만 남겨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여 남은 자의 수를 세어 보니 300명이었습니다.(삿7:8)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종하여 그렇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뽑은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병력의 수가 적으면 자연히 몸을 사리거나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용감하게 싸워 이겼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당신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6:17) 우리 역사에 몸을 담은 여러분 중에는 열성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 내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셨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기드온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기드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하시기 때문

에 300명의 군사로도 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숨을 돌려 여유 있게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쪼들리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여건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기 힘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0만이나 5만이 와서 한꺼번에 왕창 일하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고 갑니다. 그리하여 안 될 일을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만일 여건이 있어서 알곡성전 건물들이 지어졌다면 조금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오늘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이고, 계산이 서지 않는 일이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 언제나 성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쫓아다니

면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협조하고 안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협조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망, 불평도 할 수 있고, “에잇, 때려치워. 안 나가!”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왜 안 나오느냐 하고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역사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지상에서는 여러분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모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에게는 기백 명의 성도를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은 기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주의 종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게 망한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계에서는 감람나무 역사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어, 그게 아니군. 감람나무 역사가 다시 일어났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경춘가도에 이 역사를 재건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거느린 300명의

군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 군대가 됩니다. 우리 역사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이끌어 주셔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하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중에 아무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눅4:10) 하나님이 양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진작 기성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강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2:12)고 했습니다. 저는 가르치기만 하고,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곡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헌금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일하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지붕만 씌워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나마나 뻥한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릅니다. 하라는 대로 하니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Chapter 06.

# 메시아 시대와 감람나무 시대



하나님께서 일찍이,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지시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대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향의가 빗발쳐서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시피 우리의 알곡성전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부속 건물들은 일부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일부는 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땅에 떨어진 감람나무 역사가 재건된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43:7)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상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염려하고 경고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또 그것을 알아봤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진 고통의 멍에를 벗겨 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각기 매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 10:3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행2:1-2) 그들은 놀랍고 기쁘기만 했지, 죽어야 하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면 그걸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16:7)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왔으니 만사 오케이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영광을 취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

인이 되어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행1:8)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무척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천사입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하늘에 올라간 예수는 이렇게 하늘에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행1:11) 주님은 그렇게 승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그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행2:3) 몸이 뜨거워지고, 혈기 왕성한 사람같이 얼굴이 벌게지는 것이었습니다.(행2:13) 이 120명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즉 은혜가 오면 구원에 이르고 만사형통인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실제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성령이 온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받기 전보다 백배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람들이 편안히 놀고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120문도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 주님을 증거하라는 지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전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즉, 전도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롬10:9) 오늘날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핍박도 없는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신자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누가 죽입니까? 지금은 도리어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 존경을 받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붙들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얻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하면 바로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계6:9) 그 권세를 주 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그가 음부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은 순교를 요구하셨습니다.(요21:18) 성령을 받고 순교해야 만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로, 사랑하는 주 님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좋아하기만 해 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거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받았으나 주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다음 에 할 일이 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역사를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내 피를 부어 주 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해 준 게 없다.” 그들이 주의 뜻을 헤아 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주님이 뭘 원 하시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장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 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마7:21)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 까? 뜻도 모르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주의 종

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상 중에 하늘을 여시고(겔1:1) “에스겔아, 네가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고하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고 하라.”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네 시대에 여호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부인할 길이 없을 거다.”(겔3:11)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역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243장입니다. 교인 몇 십 명 놓고 말입니다. ‘주의 음성 들은 이 몸, 지금 자기를 버리며 …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내가 주의 일을 시작한 것이 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지시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 연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뜻에 호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윤곽이나마 알고 고생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 가는 역사니까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야 하고 여러분도 가야 하는 길이므로 한 배를 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문도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스테반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테반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이 사울(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지지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스테반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행7:59) 깨달고 못 깨달는 차이가 죽고 사는 문제로 엇갈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사이는 언제나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쪽은 핍박하고 한쪽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딤후3:12)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비방과 조롱을 면치 못합니다.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스테반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사울은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열심히 전한 사람이 스테반이고, 그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니, 자동적으로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 자체를 당시의 법은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 율법이였기 때문

입니다. 그때 “이 자를 죽여도 된다.”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늘에서 사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울의 성품을 보시고, ‘저 자를 들어서 써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동료들은 모르지만, 사울의 눈에는 주님의 광채가 눈부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씻음 받아 눈을 뜬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할 일을 지시한다.” (행9:6), 하셔서 택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평생을 두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나는 죄인 괴수로다.” (딤후1:15) 주님을 대적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스데반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스테반과 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진 영적인 사명도 감당키 어렵지만, 당시의 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고, “가만히 낮잠이나 자거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시가 옵니다.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하나 이뤄 나가면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의 태도가 자연히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그루터기에서라도 기어코 이루십니다.(사6:13)

오늘날처럼 붕괴된 하나님의 역사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하나하나 새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증거의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한 것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해야 할 일도 막중합니다.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사 58:12)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도 해당합니다.

## Chapter 07.

#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침팬지 같은 털복숭이에서 차츰 변하여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야영 생활을 하려면 반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곧 죽게 됩니다. 인류가 최초로 살아갈 때에는 자연 속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생적인 털복숭이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 차츰 개화되면서 오늘의 문명사회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6천 년 전부터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등을 상대하시다가, 약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에 이르는 약 200년 동안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많은 인류 중에서 그 몇몇 사람만 상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소규모 같지만,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생애가 이리이러하게 펼쳐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게 연결된 자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창17:8)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너의 부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하여 축복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창26:3) 또 그 다음 야곱 시대에 와서도 역시, “너의 부친 이삭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28:13) 이건 말하자면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200여 년 동안에 지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사람들

이 볼 때 언제나 우스꽝스러운데도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에게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질적인 중요성을 모르면 양적인 면만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과 효력을 몰랐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종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알지 못해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이방인으로 낙인이 찍혀 구원은 꿈꿀 수도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2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신 것을 당시에 한국에 사는 우리 조상들이 알았습니까?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일본, 중국 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58억이라는 인구가 각양각색 환경과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극히 적은 무리를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었고, 그 후 인류가 퍼져 나가면서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두 감람나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 것입

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문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귀하게 생각되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사명으로 생각되었지만 제3자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앙 운동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뼈에 와 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활과는 내용적으로 판이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보면 딴 사람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전개되어 지금까지 받아 오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섭리

가 펼쳐지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왜? 신앙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나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할례가 영의 할례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을 완수한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던 할례라는 규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도를 심어야 하는 그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시대에 베드로는 권위가 대단했으나, 바울은 특하면 감옥에 끌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내가 하는 일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후12:11)고 설파했습니다.

신앙 운동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한 일이 무어나고 반문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일밖에 한 게 뭐냐? 그런 그에게도 영광이 있었거늘, 하물며 죽어갈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의 직분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후3:7-8)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젠 무엇을 뜻하느냐? 양적인 면에서 모세의 위력은 엄청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사명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앞선 역사는 크게 부흥되었는데, 우리 역사

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고 말하지만, 우리 역사가 질적으로 얼마나 차원 높게 펼쳐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선 양적으로 수십만이 모였다 하면 대단하게 보는 것이 오늘의 신앙 풍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몸을 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이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 담겨 있는 요한 계시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구나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적으로 신앙이 체계화되고 토착화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신앙인,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기를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되기를 기다리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Part 02.

# 여호와의 뜻을 높이 받들 고



8. 보혈의 은총 · 9. 그리스도의 위상 · 10. 제사와 추도 예배 · 11. 죄를 두려워하라 · 12.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온 발자취 · 13. 마귀의 계급에 대하여 · 14. 엘리야와 세례 요한

## Chapter 08.

# 보혈의 은총



### 1) 감추어진 만나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설교 중에는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이 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만나가 바로 내 살과 피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없다.”(요6:49-57) 이 말씀은 당시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 너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이다. 육은 무익하다.”(요6:6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 피를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7, 요6:55-58 참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려면 혈액형이 같아야 합니다.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고 수혈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혈액형의 피를 받아 부족한 피를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피가 모자라 수혈을 받은 사람은 금방 기운이 납니다. 또 혈관 주사를 맞으면 금세 어떤 물질이 핏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혈관을 통해 심장에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혈관 안에 물질이 들어와서 섞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가 아닌 다른 물질이 자기 핏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26:26-28)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피와 살과 관

련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난다.” (요7:38) 그러나 그 생수는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야 생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계21:6)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총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단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베풀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의 은혜는 약속한 은혜, 즉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는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몇 달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의 사도들은 생수의 은혜를 모릅니다. 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따르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의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고 안수를 하니 즉시 성령이 임하더라고 했는데, (행19:6) 이 성령도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베드로에게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고 놀란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행10:44-45)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구약 시대의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레9:24, 왕상18:24)

이 불과 같은 성령이 2천 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수 샘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내려다보시고 격려했습니다. (행7:55)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약해져서 “이 쓴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 보내 힘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눅22:43-44) 그리하여 주님이 피하고 싶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요14:17, 20 참조) 이렇게 되면 승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순교를 하지 않고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일심동체가 이루어지면, 그냥 하늘나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뜻은 주님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요소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체라고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10:30) 같다 이겁니다.

하늘에서는 인간이 주님과 같은 여건을 갖게 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라면 순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생수가 내리지 않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비참한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곧 다른 보혜사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주님이 구태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도 순교해야 한다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비로소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앞에서 나는 외부에서 핏속에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심장에 느낌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보혈의 은사는 실제로 옵니다. 그것이 와서 여러분의 육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저와 같은 혈액을 갖게 됩니다. 왜? 저를 통해 그 보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혜사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안찰을 받을 때, 마치 주사기로 혈관 주사를 놓듯이 심장에 고동이 오기도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육체에 가벼운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의 보혈, 곧 보혜사 성령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이 경우에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면, 내게 있는 것이 빠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기(氣)를 넣는다든가 해서 내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준다면, 그 기가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이 내 몸에서 나가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나가게 되면, 내가 위로부터 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찰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손을 대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저한테 와 가지고 저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것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긴자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위로부터 오는 주의 보혈이 저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안찰을 하게 되면 상대가 A가 됐든, B가 됐든, 그에게 줄 보혜사 성령의 은혜, 곧 생수가 하늘에서 저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수가 오는 것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은 주의 것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주의 복사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제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의 복제인간을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다고 말합니다.(히7:17)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모습이 흡사합니다.



## 2) 보혈의 혜택

주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서 새 생명체가 이루어지면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형제간에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날 때 얼굴이 서로 닮아야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하고 친근감이 가는 거지, 형제라고 해도 전혀 닮지 않으면 정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 나와서 체계를 배우고 안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 갑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철야 기도를 해서 주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면 내 권세를 이긴자에게 맡겨서 역사하겠다.” 이겁니다.(계 2:26, 3:21)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하고,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어울려서 주의 것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 선교사는 죽으면 썩어 가는데, 여러분은 죽으면 피어 갑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어느 쪽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에는 그걸 모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에 가면 여러분이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종기가 나서 약을 먹으면 그 약 기운이 종기를 찾아가서 균을 죽여 치료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안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을 받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모든 죄는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혈액이 바뀝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화하여 피가 주의 보혈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 버리는 겁니다. 즉 주의 귀한 형상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냐? 주의 살과 주의 피, 곧 생수입니다.

이 주의 살과 주의 피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게 되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생수를 만드시면 그 생수를 보내는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옛날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여 생수를 지상에 내려보내 인간에게 변화를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를 주는 작업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맡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26, 3:21)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긴자를 통하여 생수가 우리 몸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나라에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순교의 대열에 인도하여,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 베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 목 베임을 당한 자들처럼 똑같은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도록 유도하십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산 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계속 산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 성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의 보혈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되면,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교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보혈은 어떻게 받는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를 한 것과 같은 은혜가 내려야 합니다.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자가 이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주의 보혈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내 피로 다 씻어 주었다.”는 통고를 저에게 하신 겁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다시는 너에게 어둠이 깃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저에게 어둠이 깃들면 주의 것이 못 나갑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는 당연히 허튼 소리로 들리겠지만, 여러분은 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이런 역사에 오신 여러분은 그동안 주의 종을 통하여 실제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주의 종이 안찰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여러분이라고 죽어서 썩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왜 이긴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여진다.”(슥3:9) 이게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중단하면 육은 살아도 영혼은 다 죽습니다. 믿는 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가 역사하는 시대만큼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역사를 맡아서 해나가는 주의 종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속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만큼 안도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다 마치게 되면 체계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은혜의 핵심이 뭐냐? 알기 쉽게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수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를 여러분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형상을 닮게 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출22:3)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요일1:7) 그 피는 우리에게 생수로 임하는 것입니다.(속13:1) 그리하여 이루어진 사람은 죽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 날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히7:3, 6:20 참조)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마치 주님처럼 시작한 날도 없고, 죽보도 없는 존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귀한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보혈의 은총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바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계신 곳으로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때 만약 지금과 같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베드로에게 순교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행7:60, 요21:18)

오늘날 만일 이 은혜가 없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를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감람나무 시대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의 문제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앞선 역사에는 9만 명이 라고 했습니다. 이진 주의 피를 받은 자들의 수입니다. 9만 명 중에서 겨우 이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위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 Chapter 09.

# 그리스도의 위상



### 1) 마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오늘날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해 세계적으로 크게 퍼져 가다가 한국에도 상륙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의 변화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반가움보다는 오히려 큰 거부감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복음에 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것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제외하고 거의 다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오고 간 역사적인 얘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

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은 지난날의 얘기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여 주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해당되는 새로운 지시를 받아 한 단계 더욱 깊은 말씀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보수적인 신학에 젖어 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얘기가 되어, 이단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의 위상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님은 인간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창1:26, 요1:1) 즉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요1:14)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메시아라는 존재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마22:44, 히1:13) 이와 같이 주님의 위상이 셋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아들에 대해 선



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상태로 계셨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요1:1, 17:5)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아들을 일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인간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도 인간 위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그 뜻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지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헛수고로 끝나는 폐단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담아듣는 백성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따르는 감람나무 역사에서는 종래의 기독교와는 사실상 그 깊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과정을 모르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는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잘 재배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뿌리부터 튼튼하고 훌륭한 품종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요1:14)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요1:3)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사람이 그 말씀의 존재로 계셨던 하나

님의 아들이고 보면, 친히 지으신 세계에 오셔서 친히 지으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 자체가 아마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지으신 세상에 오신 분이려면, 원래가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세계에 오신 겁니까?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학대를 받아도 그렇게 학대를 받을 수가 없고, 멸시를 받아도 그렇게 멸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건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오실 때부터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계이므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존재는 사실상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가 느끼는 차원에서 본다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위치가 유리합니까? 불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세상이 태초부터 남의 세계라면 푸대접과 고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지으신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

다. 그런 세상에 아들이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신의 세계에서 추진하신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진 세계, 곧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 아들을 보내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敵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을 빼앗겼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창3:17, 요1:1 참조) 그렇다면 이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획대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냈습니다.(요1:5)

이 경우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리켜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혹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마1:12, 2:15, 21:4)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경에 대충 표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그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 2)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운명

이제부터 또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이 가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적지에 특공대를 보낸다고 칩시다. “너는 적지에 들어가서 포도나 몇 송이 따오너라. 잡히면 매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살아 돌아오면 안 돼. 살아서 돌아오면 실패야. 넌 죽어야만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져. 너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당부했다면 일이 쉽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무척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 ‘가미가제(神風)’라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지게 되니까 부랴부랴 조직한 특수부대입니다. 그게 뭐냐? 청소년을 훈련시켜 가지고 비행기에 폭탄을 잔뜩 싣고 적의 항공모함, 군함, 구축함, 순양함 할 것 없이 그냥 작살내라 이 겁니다. “너도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폭탄이 터져서 함께 사라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지를 떠나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명 자체가 죽는 거라, 어찌다 살아 돌아오면 부모도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야 영광입니다. 그들은 죽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안 죽고 전쟁이 끝날 수 없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너는 지상에 가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상수단을 하나님은 우주를 지을 때 동참했던 아들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그것은 비상수단 중에도 최고의 비상수단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방법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의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쟁취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당백으로 상대하려면 보통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초능력적인 무엇이 있어야 여러 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와 힘이 같은 사람 여러 명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독특한 존재라야 이깁니다.

이긴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독특한 무기입니다.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긴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이긴자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긴자는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긴자로 나타나 일반 평민처럼 살면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긴자는 있으나마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끼고 비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일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마12:8) 그래서 일반인과 다른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고,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로서의 구실만 하시면 됩니다. 아들로서 할 일이 뭐냐? 성경에 아들에 대해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 하고 정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놓고 비판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는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러 왔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알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것이다.”(요10:25-29 참조)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아들의 길을 가시는 것으로 기독교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할 일에 대해 각본을 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각본이 어디서부터 시

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나머지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짜 놓았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각본을 모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학 박사들이 와서 듣더라도, 크게 공감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분들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 밖에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무조건 이단시하고 안 들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아마 유명한 목사라면 제 얘기에 감탄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 더 큰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간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겠거니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일도 한다.”(요14:12)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더 큰일도 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주의 것을 가지고 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그가 신학 공부를 했다, 미국 유학을 했



다,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의 것을 가지고 전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 계시던 주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전해집니다. 즉 다른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기록한 것은 받은 자밖에는 모릅니다.(계2:17) 그가 자의로 말합니까? 주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25년 동안 내 것을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집니다.(요16:14) 주의 것을 전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는 엄청난 거부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걸 잘 아십니다. 그 얘기는 일반교회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내용이 깊을수록 거부반응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계2:7)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 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 지시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도, “너를 따르는 자가 늘어난 다음에 얘기를 해라. 지금 말해야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영적인 말을 하면 외면하고 믿지 않는

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늘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척도로 보시는 겁니다.

이긴자는 누가 됐든,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가 위대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이긴자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시110:1, 행2:35) 그러므로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역사가 일반 기독교의 가르침과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니, 그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이 오늘날 이곳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깊은 사막지대에서 수십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연습에 참가한 장병이 800명이었습니다. 원자탄을 두 방 떨어뜨리는 데 800명이 수개월을 훈련했던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800명에게 만약 원자탄의 투하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당장 쏘아 죽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무조건 죽여라 이겁니다. 극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본서 알면 그 원자탄을 그냥 둥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합니다. 게릴라전을 하든, 밀 하든, 반드시 파괴합니다. 자기가 죽게 됐는데 가만 둥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그 내용이 기록돼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기록치 말고 인봉하라고 말했습니다.(계10:4) 왜? 극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범한 얘기라면 인봉하지 않습니다.

그 극비 전략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것도 모르는데, 기록도 안 된 내용을 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말고도 하나님이 적을 무찌르는, 감추어진 비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과 신끼리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건 가공할 전쟁입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계16:14-16) 이 전쟁에 대해 2천 년 동안 떠들어 왔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 와중에 두 감람나무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

다. 그리하여 앞선 역사는 어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두 증인이 호흡이 맞아도 힘든데,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서 뒤를 이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적당히 해. 네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야. 그냥 슬슬 해.”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차고 나가야 해.” 이려고도 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분인데, 그 분이 잠자코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2천 년을 기다린 역사입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 Chapter 10.

# 제사와 추도 예배



오늘날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죄인이 죽게 되면 마귀가 데려가서 불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계6:8) 즉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지옥이 음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모든 고정관념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옥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죽은 직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과 음부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빛의 세계이고,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빛에 적응할 수 있는 영들은 지성소로 가고, 어두운 데 적응할 수 있는 영들은 어두운 데로 끌려가게 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성소로 가는 영하고 음부로 가는 영은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융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왕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계22:5) 그러므로 이들이 다스리는 14만 4천의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의 수가 그만큼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지성소에는 목 베임을 받은 자, 곧 순교자들의 영들만 있습니다.(계6:9) 그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들은 뭐 하는 존재냐 하면,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사람들입니다.(계20:4) 즉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사람은 있지만, 심판 받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완결되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심판을 거쳐야 형벌을 받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형벌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음부에서 아직 미결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음부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그곳에서 바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

다. 음부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전부터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던 빛과 어둠의 세계가 하늘나라와 음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마귀와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음부에서 마귀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금 없습니다. 천국에는 순교자들과 천사만 있고 백성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세계입니다. (벧후3:8)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상에서는 세월이 길어도 하늘에서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년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천 년이라는 세월은 지상에서는 무척 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잠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이 없어진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추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제사는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느냐?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음부의 내부를 알면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김 서방이 평상시에 마귀를 섬기다가 마흔 살에 죽었다고 칩시

다. 그래서 그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의 마귀는 그 사람을 압니다. “아, 40년 사는 동안 나를 잘 섬긴 놈이구나.” 그래서 환영합니다. “너는 살아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섬겼다. 이제 내 세계에 네가 왔으니, 너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여기서 잘살아라.” 이렇게 음부의 세계에서 그 사람이 사는 위치를 확정지어 줍니다.

지금 순교자를 제외한 억조창생의 영들이 다 음부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 있을 때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죽은 후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마귀를 못 봤지만, 죽어서는 보게 됩니다. 같은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때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으로 화하여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영들과 음부에 있는 영들은 그 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부에 가 있는 백성들의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포로입니다. 이걸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일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30%라면 30%를 마귀가 다스리고, 나머지 70%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신과 신끼리의 ‘룰’(규례)입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도 ‘룰’(국제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에 의해 마귀가 데려가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30%의 권한만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룰’을



지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크게 당하여 고난을 겪다가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아, 욥의 다른 것은 다 괴롭혀도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욥1:12) 하나님이 이런 조건부로 마귀에게 욥을 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갖가지로 괴롭힙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물’을 정해 놓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문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대 인간이라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 마귀라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양상이 복잡합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와 음부, 즉 하나님과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도 믿어야 하고, 마귀를 적대시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김 서방이 음부에 끌려갔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에 마귀를 잘 섬겼습니다. 즉 마귀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후손이 이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고 칩시다. 죽은 다음의 김 서방은 지금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위해 지낸 제사는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바가 있으면 죽기 전까지 김 서방을 주관하던 악령, 즉 마귀의 신을

괴수가 부릅니다. “이 사람을 위해 그 후손들에게서 제사가 올라왔다.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 신이 그 집에 도움을 주러 갑니다. 그 사람을 주관했던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압니다. 그리하여 도움도 제공합니다.

그럼 추도 예배는 뭐냐? 영은 음부로 가 있는데, 지상에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스리기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하에 그가 있다면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어디에 기록하느냐? 그 사람의 명단이 책들(계20:12)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책들에 그 사람에 대한 추도 예배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이걸 언제 효과가 있느냐? 마지막 심판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할 때는 언제냐? 빛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를 빼앗을 때입니다. 빼앗아서 그곳에 있는 영들을 다 무론 대소하고 백보좌 앞에 끌어낼 때의 얘기입니다.(계20:12) 그때 기록한 추도 예배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음부에 가 있는 영들을 위해 누가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는 마귀에게 올라갑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호한다든가, 향불을 피워 놓고 주문을 외는 것만 마귀에게 가면 상관없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바뀌어, 거

룩한 성전이라는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 것까지도 마귀가 챙겨 버립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향내 나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데, 마귀가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 감람나무의 역사가 펼쳐지면 서부터 은혜의 촛대가 그리로 옮겨진 겁니다.(계2:26, 3:21) 그런데 그 옮겨진 촛대가 쓰러진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한 주님의 역사가 수포로 돌아갈 때, 주님이 어디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는 순교한 자들만 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 즉 순교를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왜 음부로 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끝났다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만큼 죄진 사람은 이리로, 저만큼 죄진 사람은 저리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그만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쓸어 넣는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14만 4천의 왕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기간이 있습니다.(계20:4) 천 년이 차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여태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계20:7-8) 이 전쟁을 성경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환난이라고 합니다.(단12:7)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된다.” 하는 단서가 붙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오기 전에 천년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계6:11)는 말씀처럼, 하나님 쪽에 정예부대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 산에 14만 4천이 있다고 했습니다.(계14:1)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차게 되면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천 년 동안에 모든 계획을 세워 준비를 마친 후에, 그 천 년이 차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음부의 최고의 왕초에게서 권세를 물려받습니다.(계13:4) 그러므로 그 권세 받은 짐승을 까버리면 음부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 짐승이 전쟁에 저서 항복을 했다면 음부 자체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바닷모래 같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섬멸하러 나오게 됩니다.(계20:8)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하고 용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음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영들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에 가 있는 이 영들은 음부의 권세자가 항복을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거두어들입니다. 그 영들을 다 하늘나라로 옮기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를 하늘나라로 옮기기까지는 하늘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14만 4천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음부에 가 있던 영들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심판할 때 ‘책’과 ‘책들’에 기록된 영들을 구분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자는 삼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게 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심판입니다.(계20:13) 여기서 쫓값으로 가는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불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Chapter 11.

# 죄를 두려워하라



성경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로  
5:20)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많이 깨닫고 뉘우치는 자에게  
은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충  
실하게 믿음을 지켜 왔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을 갖  
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가 죄  
로 얼룩져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에게  
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긍휼히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죄를  
범했더라도 깨닫고 깊이 뉘우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이런 통회자복 때문이었습

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것은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찢리는 가시를 주셨다.”(고후 12:7)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찢리는 가시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 겸허해지고 온유해집니다.

남보다 뭐가 좀 낫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겸손과 온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이라도, 오늘 깊이 뉘우치고 지난날을 청산하면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사과나무 밑에서 갓끈을 맨 적이 없나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자기 갓끈을 댔지만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사과를 따기 위해 손을 위로 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볼 때에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주 앞에 나만 깨끗하면 그만이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태도는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레19:18) 제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회장님들이나 일반 교인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를 감안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 그는 자기중심으로 생활한 사람이 지, 주님 위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으로 해서 안 됩니다. 자기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의 큰 목표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계19:8)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마포라는 하나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라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계17:14) 그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선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건 하나의 억지입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을 충성했는데’ 이걸 자기 생각입니다. 그걸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충성했다는 것은 인정받을지라도,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오래 충성한 사람



의 심령이 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 믿었지만 근래에 믿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돈독하여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야 합니다. 잘못도 겪어 보고, 착각도 해 보고, 불평도 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곤란합니다.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뉘우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낙심할 일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는 자세로 변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정신 자세입니다.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자기를 깔끄럽게 대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깔끄럽게 대한 적이 없나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이 나한테 고약하게 구는 건 그 사람이 못돼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나,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섭섭하게 여겼다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몸을 담은 이상 주님이 ‘이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났어. 범죄를 했지만 뉘우치고 새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보셔야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보

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남의 깊숙한 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남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가 저입니다.(요16:8)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견 이렇다, 저견 저렇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 종은 “너는 나빠.” 혹은 “너는 옳아.” 하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잘잘못은 신이 아닌 한 금방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한 다리 건너가고, 두 다리 건너가면 보태집니다. 그리하여 꿩이새끼가 나중에는 표범으로 변하고, 비둘기가 독수리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판단을 내리려면 근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즉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쪽 말만 듣고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적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마18:22)고 대답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사51:5) 그리하여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잠16:5)

여러분은 좀처럼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

을 뉘우칠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남이 자기를 나쁘게 보면 일단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이 역사를 깨닫고 이긴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일반 교회 신도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들보다 똑똑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인격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우습게 여길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할 게 아닙니까? 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남을 우습게 안다면 이거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나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도 된 게 없이,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상대가 존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인답다.’ 이렇게 보여야지,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 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주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아름다워지면 주께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슬하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너 없이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붙들어 주실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감동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너 같은 놈은 내 곁에 있어 봤자 내게 손해만 온다.” 하면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기회를 보아 하늘에서 외면해 버립니다.

남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남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남을 대할 때 본의 아니게 언짢은 느낌을 줬을지 모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마땅치 않게 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같이 미워하고 비방하면 집니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욕설을 퍼부어 매장시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매장시키는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너는 믿음의 형제를 매장시켰으니, 너도 매장당해 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남에게 용기를 심어 주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을 더 깊이 빠져 들어가라고 작대기로 쭈셔 넣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죽이기는 쉽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베풀어서 백성을 많이 죽였는데(출32:28) 그 결과가 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민20:10)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죽이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살리는 직분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고후3:7-8) 살리는 것이 귀한 거지,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진대, 용서하여 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 범죄해서 지옥 갈래.”, 이라고 범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믿어 보려고 했는데, 어찌다가 죄를 짓게 되어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렘5:1)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하다가도 여건만 달라지면 금방 변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딤후4:7)에서 패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천하에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들어서 쓰면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세운 사람인데’,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마땅찮아.’ 하고 단정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자기가 심판권세라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은 앉아서 만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기

도, 그 찬송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생각할 테지만, 남을 탓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걸 모르고 음란죄나 짓고, 도적질이나 하고, 남을 두들겨 패고, 남의 돈을 떼어 먹고, 꼭 이래야만 범죄인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꼭 큰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자신을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대강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큰일에 충성하면서 작은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나는 남보다도 낫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은총을 못 받는 사람과 다르다 뿐이지, 우리 자신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다를 뿐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강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3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들입니다. 소크라테스 밑에서 플라톤이 자랐는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 비중이 더 큼니다. 더 배우고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랐는데, 이 사람도 역시 플라톤보다 더 큰 철학자가 된 겁니다.

건축도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날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폰 브라운 박사가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새털 로켓’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쏘면 영국에 가서 떨어지는 폭탄인데, 그게 토대가 되어 오늘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폰 브라운 박사가 로켓을 처음 만들었지만,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오늘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만 해도 소꿉장난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큰 발전소에서 전기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에디슨이 아무리 전기를 발명했어도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에디슨의 힘을 빌려,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입니다. 맹장이요, 과학자요, 시도 잘 썼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하고 전지에서의 외로움을 시로 읊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거북선을 만들어 낸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거북선은 그 전에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그걸 발전시켜서 만들어 낸 겁니다. 또 그는 전술에 능한 전략가이자 맹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낸 거북선의 제작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니 거북선을 제작하는 기법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기법이 후진들에게 인계

됐어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그만 기법의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기법이 전수되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잠수함을 만들어 내었을 겁니다.

저도 옛날 초상화를 배울 때, 선생이 깊은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주와 오징어를 갖다가 대접했는데, 술이 얼큰하게 오르니까 방심하여 조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돈벌이를 좀 했습니다.

전에 이화여대 화학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햇살에 얼굴이 그슬리지 않는 ‘썬 크림’이라는 걸 만들 때, 제가 같이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 저는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쫓겨나고, 만날 이렇기 때문에 하나도 끝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관을 할 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 말했다니, “이 선생은 사진관이 잘되면 안 됩니다. 이 선생은 사진관 할 사람이 아닌데, 그거 잘되면 사진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관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에 와서 보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큰 통나무 속에 사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소원이 뭐냐고 묻자, “왕이시여, 지금 왕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 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궁궐에 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무통 속에 사는 디오게네스만큼 행복했겠습니까? 행복은 정신 자세, 즉 마음가짐에 달



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오늘 뉘우치고 잘해 보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주의 종이 어제의 잘못을 안 봅니다. 오늘 잘하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사람이 오늘 잘하려면 보통 각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각오를 높이 사는 겁니다. ‘저 놈은 틀렸어. 언제까지나 매한가지야.’ 하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살려고 할 때, 그는 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앞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여 만날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참으로 고독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분이 대부분이고, 일반교회에서 오신 분도 터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생활은 다를지라도 소망은 같습니다. 그 나라에 가려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 하나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개성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개성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가 없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주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만큼 상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누구는 어떻다 하고, 죽을죄라도 지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Chapter 12.

#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온 발자취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잘된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되지 않아 여호와와 노여움을 사서 멸망을 초래한 시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감람나무 역사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합니다. 그 안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오랜 고역에 시달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격려와 동시에 사랑의 채찍을 내리고 계십니다. 주의 종으로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 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그 신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순서를 거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대를 이어 퍼져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종을 부르십니다. 당시에 지구상에는 수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노아의 식구는 여덟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덟 식구를 건지고 수천만 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일반교회에서 말하는,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수천만 명 중에는 노아의 식구 말고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불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수에 대비하여 배를 만들 때, 당시에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 중에는 노아가 만드는 배가 자기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미치광이 노인네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노아를 아는 사람들이나 미쳤다고 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지, 낮잠을 자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배를 만들기 위해 당시에 살던 훌륭한 인물들 수백 명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

다.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네 식구들과 함께 배를 만들어라. 일손이 적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여덟 식구가 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 명, 천 명을 불러서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만 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식구가 배를 만들 동안만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지금 인구가 수천만 명이 사는데,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리겠다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놓고 인간들이 아무리 왈가왈부해 봤자 답이 나올 거냐 이겁니다. 안 나옵니다. 노아에게 미쳤다고 샷대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해 봤자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하겠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랫동안 떠돌이 생

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그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17:8)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지시하셨습니다. 당시에 할례를 하는 과정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남자의 양피를 벤다는 것이 당시에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주인은 자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놈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상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쓸어버리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원주민을 작살내어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자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열방의 아버가 된다. 너의 후손은 선택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독일의 첨단 과학을 발전시킨 것도 그들이고, 소련에서 위성을 띄운 것도 그들입니다. 세계적인 갑부도 그들입니다.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노벨상의 2할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낸 유대인 키신저 박사를 가리켜, 2억 4천의 미국인들을 다 합쳐도 키신저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백성인 고로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4천여 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의 두뇌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발자취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축복이 옮겨져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하듯 어떤 민족을 대해 주신다면, 그 민족은 보통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마21:43)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할례의 실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식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하는 것을 모세의 아내가 보고, “당신은 피를 좋아하는 남편이군요.”(출4:24) 하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모세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강요하여 시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

라엘 민족을 반강제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시다면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버텼습니다.(출32:32) “그럼 앞으로 천사를 보내 주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다시 함께하시기로 약속을 받고 40년 뒤 배턴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민27:20)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한 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합니다.(수5: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수11:14-15 참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신과 바알을 섬기는 민족을 싹쓸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 바알 신과 원주민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 원주민과 바알을 모조리 작살내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급선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배를 만드는 데 열중했지, 뭐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그리 쓸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축복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생스러워도 여호와께서 지시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사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다 죽이고 산당을 모조리 헐어 버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너희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을 세세토록 원주민에게 시달리게 하겠다.” 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삿2:21)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역사를 봅시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한마디로 가소롭다고 했습니다. 웃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교인들이 나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평짜리 4층 건물에 세를 들어서 예배를 보는 저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라.” 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출3:5)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장이 나타나,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수5:15) 하고 말씀했습니다. 급수가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200만 명의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천사장이 왔고, 혼자 있는 모세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대하실 때, 따르는 자의 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느냐가 중요하겠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가 시작된 지 19년 만에 여호와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가 준비를 해야겠다.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알기를 했습니까, 원하기를 했습니까? 앞선 역사에서 송장 하나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 하고 찬송을 두 시간, 세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복한 생수를 갖다 발라만 놓아도 변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정해진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열 배나

강하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생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 이영수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영수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따져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오늘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압니까? 저를 만나야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를 만나야 주님의 근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997년 6월 15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는 듣지 못합니다.

내로라하는 신학 박사들, 천주교 신부들, 부흥사들이 내 설교집을 보고, “이게 정말 이영수가 말한 거냐?” 하고 지금 고인이 되신 탁명환 씨에게 묻더랍니다. 탁 소장 말이, “이긴자 감람나무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 그거 뺄 수 없느냐?” 그거 빼면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장가가 사는 사람이 불알 떼어 놓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지 않았습니까? 감람나무 이긴자를 빼면 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언젠가는 에덴성회에 대한 책을 쓰고 죽을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는 원수 사

이입니다. 나는 사이버 교주고 그 사람은 사이버 종교의 킬러(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대상을 꼭 잡더니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계속 “주여, 주여”만 네댓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소?” 했더니,

“이 회장님, 이제부터 개방을 시키십시오.”

“개방시켰잖아요. 교회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긴자 감람나무를 빼고 일반교회하고 손잡고 왕창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허허.”

그 사람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긴자 감람나무라는 말이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올무가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조용목 목사라고, 조용기 목사의 친동생인데,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나하고 친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성경 얘기를 두세 시간 들려주었더니, 나중에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오?”

“그런 영적인 이야기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몇 절에 대해 묻기에 대답해 줬는데, 감격해서,

“저의 형님하고 손잡고 한국 교계를 크게 부흥시킵시다.”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으니 당신이나 형님 밑에 가시오.”

“나도 형님 다음 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마 당신은 착하니까 그렇게 될 거요.”

축복 기도를 해 달라고 하도 원하기에,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17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교인이 많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영수라는 사람을 청해, 가정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냐고 말입니다. 중국 요리까지 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사이버로 볼 겁니다. 그 사람은 내용을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합니까, 섭리를 알기를 합니까, 근황을 알기를 합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교인들을 외면하고 오늘날 식구라야 얼마 안 되는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긴 세월을 끌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민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 하나를 몰아내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앞선 역사가 무너졌을 때, 그 목이 곧은 인간들을 주님이 직접

지옥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면케 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존경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 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간에도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Chapter 13.

# 마귀의 계급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20:1-3)

앞선 역사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무저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일반교회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간간히 인용하지만, 무저갱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뭐냐?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그만큼 말씀들이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마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간 소위 군대마귀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겁니다.(눅8:31) 그러므로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마귀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저갱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무저갱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근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저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한 만큼 악령도 거기에 비례해서 강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조용할 때에는 그 깊은 내막이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립이 격화되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조용한 물은 바닥에 찌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 대기로 휘저으면 “야, 이 물 속에는 별 잡것들이 다 들어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평상시에는 상대방이 무슨 무기를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황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신과 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대부분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얘기가 실



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귀하고의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으신다, 이걸 일반교회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2천 년 동안을 그렇게 알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세계의 존경을 받는 교황이나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까짓 마귀야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휘 불면 곧 꺼져 버릴 텐데, 하고 태평입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전쟁이 뭔지, 무저갱이 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 귀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계2:7)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눅8:32)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군대마귀가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지만,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지상에서 겨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니

다. 무저갱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끼리는 압니다. 신과 신이 겨루는 겁니다. 신이 얼마나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비로소 부각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뜻을 준행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구세주가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위하는 건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뜻은 마귀를 발등상 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겁니다.(계21:1, 행2:35)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초비상 수단을 강구하신 겁니다. 이걸 극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여 구원하는 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할례 폐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2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받았던 할례를 없애 버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바울이 “이게 대관절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할례를 폐지시키는 이유는 이러저러하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심부름하는 사도 바울

도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내막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갈1:12)는 말씀이 이를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이거 된통 얻어터지게 생겼구나, 하고 걱정이 앞섰지만, 박차고 나가 외칩니다. 자기가 알았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니,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뒤엎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바울에게서 새로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착잡한 느낌을 갖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를 시작할 때, 이 시대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저도 암담했던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 아찔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하고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딱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육을 갖고 있어도 신이신 고로,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너, 그 사람 속에서 나와!” 하고 주님이 나무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고 마귀가 무저갱이라는 말을 최초로 한 겁니다.

이 마귀는 주님이 40주야를 철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타나 시험했던 마귀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찢절 매고, 어떤 마귀는 절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세계에 상하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에게 절하라고 요구할 정도의 마귀는 급수가 어느 정도이기에 그렇게 거세게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 떼들은 어느 정도의 급수이기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설설 기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마귀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이것을 넘겨받았다.” (눅4:7) 그러니까 “내 권세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시험한 놈은 마귀의 왕초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계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타난 마귀에게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었다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놈 아래 있는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주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원수인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

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편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환영하고 도와줍니다.

이제 온 세상의 권세를 받은 마귀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알면,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를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하기를 요구할 정도라면 그게 보통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아까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갔던 마귀들은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백성과 황태자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주님도 절하라는 마귀에게 “네 이놈, 무엄하구나!” 하고 호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쫓겨들한테는 명령조로 나오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넣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하니까 “알았다.” 하고, 산비탈에 방목하고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이 떨어지자 마귀들이 전부 돼지 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돼지들한테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권한이 그 쫓겨들에게는 먹혀들었지만, 절하라는 마귀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못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계를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 주님이 전지전능했습니까?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이걸 일반교회에서 알아야 합니다. 뭐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후도 주님을 깎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교회의 목회자들보다 백 배, 천 배 내가 주님을 더 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럼 또 다른 장면을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포 마지막 만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요 21:20) 하고 귓속말로 질문했을 때, 주님이 아무도 듣지 않게 조용히, “내가 떡을 떼어주는 놈이야.” 하고 대답하시고, 떡을 떼어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네 할 일을 하여라.” 하고 명령하시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도 아니고, 또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도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봐도 벌써 마귀가 몇 종류입니까? 지금 소개해 드린 것만 해도 세 종류가 됩니다.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가둬 둡니다. 그래서 무저갱도 구분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졌더라.”(계20:1)고 했으니, 바로 이 쇠사슬로 결박할 마귀는 즐겁게 마귀가 아닙니다. 대왕 마귀입니다. 즐겁게 마귀는 쇠사슬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철사로도 충분합니다. 이 굵은 쇠사슬로 묶을 놈은 바로 용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했습니다.(계20:2-3)

그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처넣는 이 무저갱은 아까 “저희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던 무저갱이겠습니까? 다른 무저갱입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고 까무러치기도 했습니다.(단8:27) 그 전쟁의 양상이 엄청나니까.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이런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단12:1) 그는 이상 중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 보러 와, 놀라운 얘기들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영의 세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의 문제를 비린내 나는 고깃배 위에서 열두 제자를 앉혀 놓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수천 명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열두 명을 놓고 얘기한 말씀도 진리면 세상을 뒤흔듭니다. 진리는 그렇게 힘이 강합니다.

그럼 주님을 상대로 해서 마귀가 세 종류로 나타나는 것을 방금 지적했는데, 마귀는 이 세 종류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고 빛과 어둠이 대립하기만 하여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막상 큰 전쟁이 시작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온갖 잡것들이 바닷모래같이 모인다고 했습니다.(계20:8)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쪽만 모여드느냐? 아닙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모입니다.

천년세계가 지나서, 즉 천 년이 찬 다음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 년이 차기 전에 소위 큰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천 년이 찬 다음에 이 마귀를 놓아 줍니다.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놓아준 다음에 양대 진영이 대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한 번 크게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온 인류가 언젠가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빛에 속했든, 어둠에 속했든, 언젠가는 한 번 크게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까이 살던 사람도 빛과 어둠으로 갈라졌을 경우에는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밝히는 얘기입니다.



## Chapter 14.

# 엘리아와 세레 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동정녀의 잉태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동정녀의 잉태설입니다. 신의 움직임을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치게 되면 나중에는 신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든, 의학을 공부하든, 혹은 물리학을 배우든 간에 끝에 가서는 신의 존재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과 육체 사이에는 교묘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뭐냐?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레17:11) 저는 수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인간의 혼이 핏속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핏속에 있는 혼이 맑아지려면 피가 맑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말4:5)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왕하2:11)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증언을 기독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요3:13)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머니가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고 디셉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왕상 17:1) 그러니까 족보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족보가 있고, 모세도 족보가 있고, 다들 족보가 있는데, 엘리야는 조상이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고, 어디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자라온 과정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특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다

시 왔는가를 알아보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식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아내는 늙어서 경도가 끝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아기가 태어나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경도가 끊어지니까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어서는 자식을 바라는 기도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내 엘리사벳은 쭉그렁 할망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옆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가랴야!” 해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앞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눅1:13-17)

사가랴는 성서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상기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닌 자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다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게다가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또 모르는데, 쭉그렁 할망구가 다 된 아내에게서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태어난다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제 정신이 있는가? 지금 내 아내의 나

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함부로 하는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자격으로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말이 많구나. 앞으로 너는 한동안 병어리가 될 거다.” 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가라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눅1:20)** 나중에 말문이 열리긴 했지만, 사가라는 의심한 죄로 한때 병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수레를 태워서 지상에 내려보내지 않고, 늙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를 통해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라는 존재는 뭐냐 이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만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문제 삼지도 않고, 따라서 논하지도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인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택한 겁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간 거나,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나, 승천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의 존재(세레 요한)와 6개월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를 통해 태어나고,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움직인 표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은 엘리사벳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으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수레가 대기권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모습이 엘리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도, 엘리야가 지상에서 숨 쉬던 그 상태로 대기권을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기록하면 누구나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왜 엘리사의 눈에 불수레로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영이 인간의 세계에 오려면 인간의 형상을 입어야 하고, 인간이 영의 세계에 가려면 영체로 화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엘리야를 낳은 것은 영이 지상에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인간이 죽어서 영체로 화하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이 인간 세계로 오려면 인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즉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늙은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존재인 엘리야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두 존재는 각각 할머니와 처녀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탄생의 경위는 같습니다. 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낳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분명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인인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여인은 똑같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기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무엇이 모태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으니, 성령 때문에 엘리야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하고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무슨 소리냐? 너희 집안의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어. 이미 6개월째야. 너도 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시니까.”

(눅1:35)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으면, 여러분의 육체에 느낌이 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직접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떤 작용을 하러 여러분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손이 눈에 닿았는데 여러분의 내장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온몸이 노곤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작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모태는 아기집을 말합니다. 그 아기집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일반 사람의 아기집에는 정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의 아기집에는 정자 대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기를 잉태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자가 A라는 사람의 것이면 A라는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고, B라는 사람의 것이면 B라는 사람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모태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한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면

여러분에게 죄를 씻어 주기 위해 역사하지만, 만약에 아기를 잉태케 하는 성령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기를 갖게 됩니다. 남녀 관계가 없이도 말입니다. 인체는 세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얼마든지 세포를 조종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태어난 아기는 오리라 한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자가 요한이지만, 하늘에서 보실 때에는 실패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럼 영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그는 메시아의 길 예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엉뚱한 데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고 한 집안의 족보에서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 간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삼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손에게는 힘으로 적을 때려눕히는 신이 온 겁니다. 그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고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찰을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성령의 역사하고, 오늘날 이긴자가 안찰할 때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전자는 순교를 위해, 후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계19:8) 성령이 어떻



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같이하는 성령과 엘리사벳에게 같이하는 성령이 똑같이 아기를 잉태하게 해도, 인물이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엘리사벳에게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대속하여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3:21)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똑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잉태할 경우에도 그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Part 03.*

# 소망의 닻을 올리고



15. 믿는 역사와 이루는 역사 · 16. 모세 율법과 자유 율법 · 17. 신앙은 선한 싸움이다 · 18. 안찰에 대하여 · 19. 이긴자의 권한 · 20. 하늘 군병의 역할

## Chapter 15.

# 믿는 역사와 이루는 역사



하나님과 마귀는 상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면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마귀를 올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를 알아야 자기 나라를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복에서 자기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들은 옥수수밥을 먹고, 죽을 먹더라도 자기들이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잘사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러저러하다.”고 계속해서 그것만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마귀 역시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주입시키면,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결하게 되면 그때 인간들은 하나님은 이러하고, 마귀는 저러하다는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어느 한쪽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만을 제일로 알아야 좋아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측에 있던 자가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 측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힘도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했던 자가 아무리 마귀를 알아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마귀에게 상당한 힘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도 부담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아담,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니,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내쫓았던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인 하나님도 알고 악인 마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 하와는 언제 마귀의 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제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알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위대성을 심기 위해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의 위력을 과

시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현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우리가 언뜻 보면 인간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편에 속하든, 마귀 편에 속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기가 유리하고, 마귀에게 속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하기가 유리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에게도 귀한 존재가 되고, 마귀에게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과 신끼리는 인간을 중간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는 고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유리해지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마귀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마귀도 인간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은 마귀를 모르고, 마귀만 알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싸우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쪽은 하나님만 제일로 여기고, 다른 한쪽은 마귀만 제일로 여기고 태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마귀에게 도전해 올 때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귀가 가로막아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복귀시

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좌절시켜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내막을 잘 알아야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에는 마귀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왜 마귀가 활동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만을 상대할 때에는 마귀가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는 마귀가 별로 나서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을 입었어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마귀대로 적절히 대응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마귀가 번개같이 따라 내려왔다.”(눅10:18)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는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맞먹는 지위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를 잘 알고, 그 마귀도 주님을 잘 압니다. 신과 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후로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창3:17, 눅4:6) 빛과 어둠은 섞이려야 섞일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 빛이 오니, 대결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마귀에 대하여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따르는 양떼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마13:39) 주님은 마귀를

훤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과 신은 대결하게 됩니다. 싸움이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양자가 대결할 때에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이기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단속하는 규제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법도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는 그 법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를 때려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끼리 살아갈 때 지키는 규례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치고받고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고 정해 놓은 율법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적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법도가 아니고, 적과 싸워 살아남는 방도가 존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지켜야 할 법도하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방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즉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요14:14) 이것은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루아침에 밀어내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당시에는 그 이상 이단적인 말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뭘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밀어내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하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 것을 각오하고, 주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큰 변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눅16:16) 쉽게 말해서 “이젠 내 시대다.”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의 법도가 심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심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하고 주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 봤자, 그건 헛수고에 그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패망한 앞선 역사의 뒤를 이어 나올 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였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기로 쓰시는 겁니다. 마귀를 까부시는 무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즉흥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긴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하

여 하늘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4:5)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예비자가 제 구실을 했느냐? 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이 좌절당하는 것은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감람나무 역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헤치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권세를 맡겨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뤄 내야 합니다. 위에서 재료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이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린 겁니다. 이루지 못하면 집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사코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반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마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모여도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

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송장이 썩어서 가도 주의 품에 안겼다고 목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시대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주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뜻을 따릅니까? 주의 뜻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전하여 주지 않으면 어찌 들으며,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롬10:14) 이 시대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십자가의 군병을 길러 내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 군병을 실제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군병의 수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겁니다. 왜 직접 하시지 않느냐? 직접하실 수가 없습니다.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권세를 맡겨서 역사하겠다.”(계2:26)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택하시고, “이제부터 너를 통해 내 나라에 오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를 대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종교의 교주들은 저마다 ‘내가 누구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다고 은혜가 내립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실체가 부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말이 성경과 부합되고, 상응한 은혜가 실제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영으로 재창조해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14:16)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이 알곡성전이 된 겁니다. 모두가 비유입니다. 낫은 추수할 때 씁니다. 알곡을 거두어들인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내리면서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허풍떨며 중구난방으로 덤병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곳입니다.(계20:3) 상대가 시시껄렁하면 가둬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그만이라면 가두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살인범, 도둑놈, 강도, 날치기 등을 그냥 놓아두면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 두는 겁니다. 그놈들이 언제 무슨 행패를 또 부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모두 진멸하면 무저갱이 필요 없습니다. 무저갱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저갱은 빛으로 어둠을 포위해 놓은 곳입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득세하게 되면 빛을 삼켜 버립니다. 그런고로 어떤 어둠의 세력이 닥쳐와도 꺼지지 않는 빛을 지니고 있는 자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빛이 삼킨바 되는 자들은 있으나마나합니

다.

“그 어둠의 세력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뿐이더라.”(계13:8)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여러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자들로 길러 내는 겁니다. 그 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계6:11) 요한 계시록의 14만 4천은 애들 장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더라.”(계7:4)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건 이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긴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요한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겁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고,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계20:4) 그 앞에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광채가 나는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이들은 어둠에 삼킨바 되지 않는 빛을 소유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즉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는 빛의 세계로 가게 될 것이고, 빛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어둠의 세계(음부)에 끌려가서 심판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20:5)는 말이 그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죽어서 하

늘나라의 지성소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마귀를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들어갑니다.(계19:20)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세 마포를 입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어둠이 여러분을 다시는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과 신의 ‘물’입니다. 신끼리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이긴자가 된 후에 “다시는 너에게 어둠이 깃들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난 25년 동안 줄곧 그대로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 주실 겁니다. 이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저를 통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나가고, 저를 통해 주의 지시가 내려오고, 저를 통해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밝혀지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이 흘러 들어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입김을 불기만 하면 그것이 생수로 화해지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까? 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갖가지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건 그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왈가왈부해 봤자 그 아들이 변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이긴자에게 주겠

다.”(계3:21)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 이긴자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물려받으니까 하나님은 이긴자를 아들처럼 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로 발을 닦을 때, 한 제자가 “저는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하고 말하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눅7:47) 바리새인이 보고, “저가 뭘데 남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하고 비꼬았습니다. 누구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마16:19)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쪽 강도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하늘나라에 가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눅23:42) 하고 말하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다 체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가 강도짓을 했든 안 했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권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그 권한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권한은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은총입니다. 제가 안찰을 하면 여러분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제가 축복한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지상의 것을 가지고 백 번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25년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썩은 송장에 생수를 바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가는 우리 성도에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물통에 물을 떠놓고 기도만 해. 생수가 될 테니까.” 하고 축복해 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긴자가 아닙니다. 그가 미국에서 기도하는 순간, 여기서 내가 축복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생수가 됩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단이요, 사이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도, 모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음부로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음부에 가더라도 대우를 받습니다. 마귀라고 무조건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Chapter 16.

# 모세 율법과 자유 율법



인간이 신을 의지하는 것을 흔히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을 믿고, 그 신의 인도함에 따라 자기들의 어려운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있다, 혹은 신앙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사실상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인간은 분명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빛의 신이든, 어둠의 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승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상대를 보지 못하고, 상대는 이쪽을 보고 있으니, 한쪽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님은 10년이 걸려야 찾을 수 있는 일을 성한 사람은 한 시간 안에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자고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상대하여 여러 모로 애를 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낚은 자들을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숙13:9)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마10:22)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성실하게 남아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조가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하는 발자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롬2:6)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을 기뻐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신앙의 색깔이 변치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자유 율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 율법은 모세 율법과 판이합니다.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법도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정된 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군데 정착했다가 다시 옮기는 방랑을 무수히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뒤돌아보면 애굽에서 살던 미련이 남아 있고, 앞을 내다보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압적인 규제가 없이는 이 끌어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대할 사람들이 못됩니다. 유목민은 이방 민족과 어울리면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율법으로 고삐를 단단히 죄고 엄한 채찍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상대를 못 믿을 때에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못써.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정해 줍니다. 율법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상대방을 단속하는 겁니다.

집에 울타리를 왜 만듭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이 없으면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계21:25)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적이 있으면 성문을 닫는 것이고, 적이 없으면 성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공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국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법으로 금합니다. 그걸 보안법이라고 합니다. 공산국가가 없거나, 혹은 공산국가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안법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은 뭐냐? 바울이 증거한 것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롬7:6) 기독교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지만,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고 율법에 매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즉 ‘자유 율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 율법과 자유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봅시다. 모세 율법은 그 법령을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일정한 규례를 정해 놓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어겨도 어긴 거고,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어겨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하고, 두 다리가 성한 사람의 행동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은 다리가 둘 다 성한 사람이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나,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

키라 이겁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치 못한 겁니다. 모세 율법은 바로 이러한 단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유 율법은 어떤가? 자유 율법은 상대방의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60세 노인과 열 살짜리 아이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자유 율법은 정상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정해져 있는데 자유 율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범죄했을 때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모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 율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 죄의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형량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하느냐? 모세 율법은 제사장이 정죄했지만, 자유 율법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이 직접 정죄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잘잘못을 직접 살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살피시다가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달라 집니다. 이긴자의 슬하, 즉 감람나무의 그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이긴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요16:7-8) 책망한다는 것은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지면 정할 것은 정하고, 제할 것은 제해

버립니다.(슌3:9)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긴자에게 충만한 일곱 영, 즉 성령에게 있습니다.(계5:6)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만큼 이득이 가고, 얼마만큼 손해가 가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주의 종에게 와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법이 정해집니다.

모세 율법은 옛날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이긴자의 시대에는 이긴자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지시가 법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시를 했다면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 성령을 통해 이긴자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어떤 사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면 지난날은 백지화됩니다. 그리하여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모세 율법과는 다른 기준에서 선과 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성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면, 감람나무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몇 해 동안 어떻게 살았다, 이게 다 나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컴퓨터는 ‘저리 가라’입니다.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관(왕)이 “넌 이러저러한 죄과를 받아야 해.” 하고 선고하면 그가 한평생 범죄한 사실이 필름처럼 다 나타납니다. 그

러므로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비디오를 보듯이 다 드러냅니다. 속 죄함을 받아 제거된 죄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머지는 다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심판관은 그걸 보고 거기 해당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잠 24:12)

주의 종이 안찰을 할 때 상대방마다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 범죄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를 했다면, 거기 해당하는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갑니다. 저는 그 범죄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압니다. 그래서 그가 안찰을 받으면 주의 종을 통해 나간 성령이 그에게 남아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하여 속죄가 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볼 때에는 그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도 과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성령은 그의 얼룩진 발자취를 제거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오묘한 조화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의 죄를 많이 제거할수록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길러 내는 겁니다.

비유해 말하면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손으로 스웨터를 뜨던 것을 기계로 대치하면 순식간에 수십 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긴자는 이를테면 기계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각자가 하는 것은 수공업이고, 이긴자를 통하는 것은 기계공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 매일 새벽 제단에 나가, 금식 기도해도 될까 말까한 것을 이긴자를 만나면 금세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속죄를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늘에서는 단시일에 군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자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이것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를 거쳐야 내게 올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섭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요14:6)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영을 모르고 육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해를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주의 종이 축복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은총을 입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열심히 믿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가? 왜 여기서는 시체가 피어 가고, 거기서는 썩어 가는가? 여러분은 믿음이 독실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은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섭리 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섭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들어, 주의 종이 골치 아프게 일하기 싫어, 상대가 범죄하면 마구 잘라 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자르면 아무리 열심히 울고불고 매달려야 소용없습니다. 당시에 이긴자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자르면 영이 죽습니다. 당시에 이긴자가 도깨비라고 잘라 버리면 실제로 도깨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은 인간 밖 아무개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보혜사 성령의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잘라 버리면 그냥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그 다음부터 안찰하면 나가자빠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오는 보혜사 성령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다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주의 종의 어깨가 무겁더라도 여러분을 그 세계에 인도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여러분이 방종해서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방종하여 범죄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

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단에 안 나옵니다. 제단에 안 나오면 주의 종이 아무리 건지고 싶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긴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면 마귀가 가만있습니까?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시는 못 나가게 잡아 버립니다. 그럼 육은 멀쩡해도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죽이긴 쉽습니다. 잘라 버리면 됩니다. “너, 안 되겠어. 나가!” 이렇게 정죄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살리고자 할 때에는 주의 종에게 상당한 영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과가 그에게 가산됩니다.

자유 율법이 간단한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건 범죄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자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감히 밝히는 겁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다가, 악조건, 호조건, 하면서 “감람나무는 하나다.” 하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겁니다. 그는 성경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때가 되자 하늘에서 제거하신 겁니다.(계22:18-19)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

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늘에선 쓸모가 없을 땐 언제나 가차 없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앞선 역사가 얼마나 큰 단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때에는 하루아침에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하늘의 원리입니다.

## Chapter 17.

# 신앙은 선한 싸움이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생애에서, 영원한 세계에 거할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눈만 뜨면 우리에게는 현실이 앞에 놓여 있어, 육에 얽매인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투쟁입니다.

누가 끝까지 참고 성실하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갈 길은 정해지고, 또 그 세계에서의 영화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이 박히지 못한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변덕이 많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결심이 3일을 못 갑니다. 아무리 마음

을 굳게 먹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곧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의 종은 오늘날까지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거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해라, 진실해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라,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신앙,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호소하면서 이겨 나가는 생활, 그것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생활은 없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이 찬송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 소중한 생명력입니다.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칠수록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옛 시절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시절, 주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시절이 어느 때였던가를 한 번 돌이켜보는 것도 신앙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자기가 발견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 2:4)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했던 옛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 곧 신앙의 전쟁입니다. “나는 남보다 많이 배웠는데”, “나는 남보다 돈이 많은데”, “나는 남보다 재능이 뛰어난데”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썩을 것들입니다. 그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썩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죽어 버리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 즉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썩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송두리째 썩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심령이 어려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수록 갈등과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14만 4천의 하늘나라 군병들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임금을 아무나 만나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중요

한 국사를 주관할 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장관들입니다. 이 모임을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14만 4천의 왕들입니다. 이들 이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안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계22:4) 그 거룩한 성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들과 신약 시대에 순교한 영들과 세 증거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책을 ‘하나님의 기념책’(말3:16)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책을 받으신 후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계21:27)이라고 부릅니다.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됩니다.(계22:5)

세상에서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어명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왕 권세가 14만 4천의 하늘 군병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義)의 왕이라고 말합니다.(히7:2)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는 권한이 또한 심판할 수 있는 왕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대의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통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금송아지에게 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비참하게 쓸어버리신다면 제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니,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출32:32) 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심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후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받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유예 받게 됩니다. 유예라는 것은 형벌을 내리되 그 집행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기본 강령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십자가 군병의 명단도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극비 문서로, 일곱 인으로 봉하여 아무나 그 책을 뚫 수 없고, 따라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책을 떼어 보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최대의 언약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임금이 옥새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옥새를 넘겨받은 주님에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있던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 전부 부복을 하게 됩니다.(계5:8) 그 후부터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갖고 행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께서 하



나님으로부터 이어받으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잡으신 우리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면서, “이긴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긴자에게 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계3:21)는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권세는 사람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저러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요한 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히5:8)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당신의 뜻을 준행하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앉게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는 각각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영의 세계에 가면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집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들 중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서십

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반열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시110:4) 차례대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럼 아론의 반열은 뭐냐? 아론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들을 아론의 반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그 정해진 울타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따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된다면, 60점 이상만 받으면 백 명이 됐든, 만 명이 됐든, 다 합격이 되는 거고, 60점 이상이 안 되면 아무도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60점을 ‘컷라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14만 4천으로 그 군병의 수를 정해 놓고, 그 수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 공식적으로 언약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왜 언약을 하느냐?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나님과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상일도 그렇습니다. 계약을 분명히 맺고 일해야 나중에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일하면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저는 주님을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앞에서 물러가거라.” 하고 외면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마7:22-23)

성경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있다고 했습니다.(계14:1) “또 하늘의 군병들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더라.”(계19:14)는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6:2)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상에 계실 때에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얘기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앞으로 직접 싸울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싸워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의 하늘 군병입니다. 주님의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2천 년 동안 이런 내용을 알려고 무진장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14만 4천은 주님과 같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입니다. 이 전쟁에는 아무나 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전쟁에 나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

다.

여러분, 별 네 개 단 총사령관은 군복 차림에 가죽 장화를 신고 전쟁하고, 저 밑에 있는 일등병이라고 해서 핫바지 차림에 쥘신을 신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령관은 평상시에 정복 입고 지프 타고 다니지만, 전쟁이 났다 하면 그 사람이나 저 밑에서 싸우는 일등병이나 똑같은 군복 차림새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전쟁을 해야 하는 군병이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군복이 ‘세마포 옷’입니다. 백마를 탄 하늘의 최고 사령관인 주님과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형상이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고도의 영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나가 싸워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계13:8)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14만 4천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 때에는 소수의 순교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주님에게 넘어간 겁니다.(계5:8)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 책을 보신 다음에, 이권 이렇게 하고, 저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분명히 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주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그 책에 두 감람나무 곧, 이긴자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두 감람나무가 실제로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나 땅 아래에 떼거나 볼 자가 없도록 일곱 인으로 봉했기 때문입니다.(계5:3)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주님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마24:36 참조) 여러분은 영적인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것 아니게 생각될지 몰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어찌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위치가 된 것뿐이지,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를 맡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걸로 알고 있지만,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나고 못한 건 하늘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지, 개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놓고 왈가왈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는 세상일과 크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다가 부딪쳐 깨져 버리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14만 4천으로 정해진 하늘 군병의 명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차근차근 기록하셨고, 주님이 그 명단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최초로 주님이 그 생명책에 명단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님이 직접 내려다보신 겁니다.(행7:55) 이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선 자가 사울이었습니다.(행7:59) 그때 주님이 스테반을 관심 있게 내려다보시다가 사울(바울)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자를 들어 써야겠다, 해서 특별히 불러 사도로 쓰신 겁니다.

바울이 선하여 주의 종이 됐습니까, 기억을 받아 된 겁니까? 기억을 받아서 하늘에서 쓰신 겁니다. 선하긴 뭐가 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죽이는 주님의 적입니다. 그러나 적이라도 그를 돌이켜서 쓰실 때에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도끼를 가진 사람은 얼음을 깰 수도 있고, 나무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도끼로 왜 얼음을 깨지 않고 나무를 찍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위에서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긴자에게, “이기는 자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됐든, 이긴자가 되면 그 권한이 이긴자에게 와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좌는 권한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히5:8-10) 그리고 이긴자가 나오면 그 이긴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내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 이긴자가 되면 그 권세를 주님은 주셔야 하는 겁니다.

왕으로 책봉될 때 암투가 벌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집안끼리 겨루다가 어느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경쟁자와 왕이 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권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왕이 되면 다른 경쟁자는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합니다. 왕의 눈 밖에 나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느 한쪽이 임금이 되어 옥새를 물려받는 날에는 그 임금의 말 한마디에 그 라이벌은 죽고 삽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긴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했는데,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이긴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잘못할 때에는 거꾸로 도전자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앞선 역사가 바로 그 짝이 난 겁니다. 그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가 어떻다고 성경 구절을 하나 갖다 붙여 놓고 떠드는 사이비 종교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역사가 25년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은 성경과 부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를 남용한다든가, 교만하다든가,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라.” 이런 거라면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저 아니라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내게 필요한 알곡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 알곡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군병입니다. 그 군병을 배출해내라 이겁니다.

이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재료가 주의 종에게 와 있다고 해도 상대방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종과 호흡을 맞추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다 겪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부딪쳐서 잠을 못 자고 옆치락뒤치락할 때, 저는 몰라도 성령은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따뜻한 주의 손길에 의해 오늘날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위대하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 오면서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고 미리 준비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새도 없습니



다. 매일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볼 때에는 작은 일이지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부딪치고, 깨지고, 다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막을 아셔야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상대가 인간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칩니다. 주의 종을 자기와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따르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시대의 섭리를 알고 주의 종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성령이 살피십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에게 알려 주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대단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척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써 놓은 책자를 백 번 읽어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좀 높은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요3:11)

우리 역사는 하루아침에 후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 이상의 지구력 말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지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마24:12)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이겨 나가면서 따르지 않으면 남아 있지 못합니다. 알곡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 Chapter 18.

# 안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명과일이 필요합니다. 즉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와의 것입니다. 그 양식을 아담, 하와가 섭취할 때 비로소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성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를 통해서 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바울도 안수를 하여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행19:6)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위에서 보내면 바울이 받아서 전해 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다음, 우리처럼 밥을 먹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먹는 생명과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요소가 함께하며 힘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음식, 즉 선악과를 먹어서 힘이 생겼다면, 다른 요소가 함께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힘이 나는 건 똑같아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나서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엉뚱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이제 하나님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냉정합니다. 하루아침에 확 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눅23:40)

여러분이 주의 종의 슬하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다 각각입니다. 김 서방, 박 서방, 할 것 없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하여 안찰을 받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사람이 하나같이 변합니다. 이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보내시고자 하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만 가지 전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로 전파를 받아들이는 장치, 즉 수신기가 있어야 전파가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고 싶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으면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긴자는 주의 것에 사이클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50사이클로 지상에 전파를 보내려고 한다. 너는 수신기가 되어 이걸 받아라. 그리고 이 전파를 백성들에게 나눠 주어라.”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 서방 혹은 박 서방이 안찰을 받는 순간에 그의 옛사람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속사람이 형성됩니다.(고후4:16) 받는 사람은 각각인데 주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같은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혼, 쉽게 말하면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혼하고 교류하십니다. 신하고 육체는 교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하고 어떤 형태로나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의 요소(혼)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받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비유로 설명한 대로, 전파가 올 수 있는 수신기가 주의 종에게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의 종에게 전파를 보내면, 주의 종은 위에서부터 전파가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안찰할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때 이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똑같은 손으로 똑같이 3, 4 초 동안 대더라도 상대방은 각양각색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찰을 자주 받으면 영혼은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귀한 형상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것이 아닌 정반대의 요소를 받아들였다면, 즉 범죄를 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여러분의 형상이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 가던 모습이 주님과 정반대되는 영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가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계 20:14) 어둠의 세력이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끝장내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대결에서 한쪽이 결판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맡다 보니, 주께서 권한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긴자가 나타나면 무엇 무엇을 주리라 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계시록 2-3장 참조)

교황은 추기경들이 뽑는 겁니다. 그리하여 5억의 천주교인들이 하늘같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옷자락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방탄유리로 막고 다니기 때문에. 이긴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긴자에게 이리저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분이 오셨지만 ‘너나 나나 하루에 밥 세 때 먹기는 마찬가지인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격차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얘기들은 밖에서 단을 지키는 목회자들에게는 해당되지만, 이긴자에게는 해당치 않습니다.

## Chapter 19.

# 이긴자의 권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앞선 역사에서 이어지는 나중 역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든, 괴롭든 즐겁든, 앞선 역사의 뒤를 이어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앞선 역사는 기성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그루터기에서 부스러기를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모양새도 시작부터 초라하고,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인류 문명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족장 시대, 혹은 모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미개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대하여 보여주고 들려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가 성



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지식이 더해져서 빨리 왕래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단12:4)

몇 해 전에 ‘휴거’라고 해서, 어느 교회에 수백 명이 흰 옷을 입고 모여 승천한다고 떠드는 광경이 텔레비전에 나와 세상을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자기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견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살전4:17) 이것을 ‘공중재림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하여 엘리야처럼 승천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들려 올라가고 싶다고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지상에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마귀가 발등상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시110:1, 마22:44)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상세한 가르침을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작업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뭐냐?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를 세우기로 예정하시고, 주님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지시하여 이긴자가 나타나면 무엇 무엇을 주겠다고 예고하

셨습니다. 그럼 왜 주시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괜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인들이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이긴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긴자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김 목사가 교인들에게 필요하면 그대로 놔두고, 필요 없으면 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박 목사를 데려다 놓습니다. 박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내쫓고, 이 목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주 바뀝니다. 교회는 이처럼 양떼들이 주인입니다. 양떼들의 눈 밖에 나면 목사는 보파리를 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양떼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물입니다. 이긴자는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모여서 택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야 그 목사를 알아줍니다. “교인을 몇 만 명 거느리는 목사님이라.” 해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목사가 유명해집니다. 이긴자 감람나무의 권세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계3:21) 그리하여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겁니

다. 일반교회에서 말하는 주의 종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긴자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걸 ‘체계’라고 합니다. 주님의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얼른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부딪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웃에 있는데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 뭔가 색다른 게 있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 주신 주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을 전하고, 저는 주로 하늘에 계신 오늘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일반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긴자는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긴자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는 바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잘 따르고 안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열심히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

아의 식구들은 노아를 도와 배를 만드는 데만 열중해야지, 다른 일에 한눈을 판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호흡이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배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이긴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이긴자는 세상을 도피하여 혼자 고고하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창을 밟기도 하고 오물이 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더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자는 일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때가 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때가 타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언제나 불담으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긴자가 어디 가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내 몸속에서 그 음식이 불합당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나한테서 안찰을 받는 상대방에게도 불합당한 요소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어떤 불합당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소위 말하는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긴자의 특권입니다.

세상 모든 성인군자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뿐이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원죄(롬6:17)와 유전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죄를 안 짓고

산 성인 군자는 오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아무 죄도 짓지 않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영적인 오염도가 오늘 태어난 이 아기와 같다고 소리입니다. 그럼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 해서 시체가 썩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시51:5) 시체가 썩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긴자에게서 안찰을 받으면 원죄와 유전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일반 목회자들이 이 자범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다고 해도, 원죄와 유전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썩는 겁니다. 남들의 눈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이처럼 결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해지려면 하늘에서 원죄와 유전죄를 씻어 줘야 합니다.

이긴자는 영적인 청소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씻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긴자가 빛은 아니지만,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그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 주는가? 빛 되신 주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은 언약대로 곧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즉 권한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계3:21) 그리하여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기성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축복을 여기 오신 여러분이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곳에 그런 섭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일반교회의 교인들보다도 뒤 떨어질 겁니다. 그들의 열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열성은 저리가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놀고먹는 셈입니다.

오늘날 이북에서 첨단장비 없이 몇 백 명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저마다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봤자, 포클레인으로 일하는 것을 못 따라잡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해 가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긴자의 손길 하나로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백 명의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장비 하나가 다 해치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만 명이 모여서 아우성을 쳐도 안 되는 것을 이긴자가 혼자서 척척 만들어 낸다면, 주님은 그 백만 명을 귀히 보시겠습니까, 이긴자를 귀히 보시겠습니까? 이긴자를 귀히 보시게 됩니다. 주님은 실속을 차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긴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양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을 쓰고 계

시는 겁니다. 저부터가 주님이 부리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앞세워 여러분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는 대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섭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언약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섭리가 아니므로 나오는 상관이 없다.” (마7:23 참조)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Chapter 20.

# 하늘 군병의 역할



### 1) 정예부대

하나님이 정하시는 섭리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순교하게 하여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려는 섭리가 지속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요3:16)는 말씀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왕 권세를 행사하는 십자가의 군병, 즉 14만 4천이 차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군대가 필요할까요? 군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군대가 많으면 그만큼 방위비가 늘어나 백성들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것을 국방 예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국방 예산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군대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군대는 적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하늘의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의 군대는 지상의 군대와는 다릅니다. 지상의 군대는 국민 중에서 소집하여 몇 만이다, 몇 십 만이다, 이렇게 애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늘에 14만 4천 명의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14만 4천 명의 군대가 편성되지 않으면,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측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긴 때부터 점령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모든 생명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창 3:14, 17)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애국지사 혹은 독립투사라고 말합니다. 영의 전쟁도 마찬

가지입니다. 백성이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람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들이 하늘 군병이 되는 겁니다.(계17:14) 그리하여 지배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행3:21)

오늘날 체첸에서는 독립 게릴라 부대가 막강한 소련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장병들이 싸웁니다. 영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늘 군병입니다.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특공대를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애국투사와 같은 특공대를 배출시키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양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는 뭐냐? 하늘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양산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바로 전쟁에 필요한 군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작부터 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는 다른 곳과 차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대 격전을 앞두고 목숨을 던져 과감히 싸울 군대를 특공대라고 합니다. 특공대는 일반 군인하고 다릅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특공대는

싸움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무조건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월남 전쟁 때 ‘초토화 작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전투 지역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토화 작전 지역 안에 들어갔다 하면, 그 지역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전쟁을 할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계20:9) 적의 일부를 사로잡아 살려 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싸우는 군대의 임무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와 싸울 때에는 이겨도 별것 아니고, 져도 별것 아니겠지만, 마귀의 본부를 까부술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마지막 결전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군대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의 정예부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입니다. 지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런 하늘의 군대를 배출시켜라 이겁니다. 오늘날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가 아닌 다른 목자들은 하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길러 놓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심판을 거쳐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음부에 다 있습니다. 계시록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계20:12) 그러나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

가 아닙니다.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를 육성하라는 특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과정이 일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차원의 종교운동하고 같겠습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파괴할 목적으로 남파됐던 무장 공비인 김신 조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일반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장 공비는 간첩하고는 다릅니다. 남파에 앞서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예컨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닥치는 대로 짐승도 잡아먹고, 뱀 같은 것도 날로 그냥 먹고, 공동묘지에서도 잠잘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군인하고는 다릅니다.

하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는 보통 훈련을 받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한다.” 하고 떠들어 댈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알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때를 변개하고자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단7:25) 저들이 작전을 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지금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어둠에 잡힌 겁니다. 그걸 주의 종이 하나씩 빼내고 있습니다. 뺏어다가 기르고 있는 겁

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걸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주의 종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어졌으니까 주의 종이 조금씩 밝히는 겁니다.

남이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겉으로 표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 2) 짐승과의 싸움

요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이긴다.”(계17:8)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마지막 전쟁 때에 온 세상의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마귀는 바로 괴수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계13:2)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손아귀에 넣고, 그 힘으로 14만 4천이라는 하늘 군병과 대접전을 벌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 아니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겁니다.(계13:8) 경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항복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라야 그 짐승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천년세계가 끝나야 나타납니다. 천년세계가 끝난다면 지상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짐승에 관한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뭔지 모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는 알려는 의욕조차 못 갖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의 움직임을 심도 있게 논하는 것은 앞으로 그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짐승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천 년은 지상에서의 천 년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 년이 지상에서는 길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잠깐에 불과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의 세계에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벧후3:8)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란 무얼 뜻하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요, 심판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계20:4-6)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누구냐? 바로 짐승이라는 마귀입니다.

그럼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짐승 하나하고 싸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짐승은 마귀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럼 짐승이 거느리고 나오는 군사는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4만 4천은 정해져 있

는데, 짐승은 어둠에 속한 수많은 영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계 16:14) 그 세력하고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싸움을 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은 사람은 그 엄청난 위력에 전부 항복하고 만다 이겁니다.(계13:8) 그러니 짐승이 부하를 거느리고 등장하는 영의 전쟁은 그야말로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란입니다. 핵무기가 가공할 힘을 발휘하는 3차 대전이라 해도, 그 영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은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이 어둠을 삼키면 빛의 세상이 될 것이고, 어둠이 빛을 삼키면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어둠에 삼킨바 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렬한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는 옷입니다.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눈부신 광채를 발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지닌 광채입니다.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만한 자격이 없으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면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는데,(요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바로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빛은 누구의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빛과 어둠과의 전쟁에서 빛은 어둠을 삼키려고 할 것이고, 어둠은 빛을 꺼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 빛이 시원치 않으면 어둠에 삼킨바

되고 맙니다. 항복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존재들은 어둠과의 전쟁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천 년이 찰 동안 하나님의 군사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짐승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저갱의 짐승을 내놓아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때에는 주님도 나가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계17:14)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에 이겨야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모든 일이 끝이 내려면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끝이 온다.”(단12:7)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병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뜻은 빛에 속하는 모든 권세를 어둠이 삼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마흔두 달 동안 짓밟는다, 3일 반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등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빛의 행세를 못합니다. 모든 성도가 어둠의 세력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믿는 분들은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



다가 죽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죽어서 곧 천국에 가고, 모든 게 해결된다면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신 주님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시리라.”(계17:14) 하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얘기가 요한 계시록에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편성되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는 주님과 함께 짐승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주님이 싸울 최대의 적수가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다 편성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짐승은 마귀의 대표입니다. 짐승을 박멸시키는 것을 성경은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 그겁니다.(마22:44) 앞으로 주님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자격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자격자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빛나는 광채를 말합니다. 그 광채라야 어둠을 이깁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할 적이 얼마나 강하고 또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비슷한 광채를 발하는 존재가 14만 4천 명이나 있어야겠다

고 걱정하셨겠습니까? 그게 결코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아들과 비슷한 존재가 14만 4천이나 있어야 한다면, 상대의 전력이 시시합니까? 막강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계19:14)고 한 것이 그겁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14) 이게 핵심입니다.

얼렁뚱땅 믿어서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2부제, 3부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어지도록 모입니다. 그분들 가지고 하시면 되지, 뭐 답답하다고 따로 꾀죄죄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구태여 지시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행19:8)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으려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마포는 쉽게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전쟁할 때 입는 군복입니다. 계시록에 백마를 탄 어린 양의 뒤를 14만 4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계19:14) 선두에 주님이 서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이 한동안 득세하지만, 그리스도가 진두지휘하여 꺾어 버리게 됩니다. 1,260일을 예언하는 날 동안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득세할 때 엄청난 시

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가 깨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합니다.(계12:6) 그 기간이 지난 다음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도전할 때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이 하늘 군병이 되어 마지막 결전에 나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 죽음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도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잣나무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의 눈에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대홍수가 날 때에는 그 배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목 베임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 증거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편성되는데, 그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마귀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신은 신끼리 싸웁니다. 인간은 신을 상대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과 싸울 수 있는 신으로 육성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줄개 마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격자가 되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나는 꼭 살아 돌아온다.”고 보

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하늘 군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상대는 최강의 악령들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데리고 오는 각종 악령들 중에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무당, 박수들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악령들이 부지기수인데, 그중에는 여러분을 괴롭힌 악령들도 나타나 같이 싸웁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의 형제나 자식 그리고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지상하고는 판판입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도 구원받고, 못 받는 마당에서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세계로 가고, 하나는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어야 백 년 살지만, 영의 세계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눈앞에 있는 가족이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육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 가족이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주의 종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남편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어야지.” 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혜택이 갑니까? 그게 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주의 종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보러 여기까지 오시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지어 영광을 돌리라고 지시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알곡이 여물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건축 기간인 고로 우리가 이 일에 열중하고 있지만,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는 지시가 오면 또 예배에 치중해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라는 지시가 오면 그때는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버스를 준비하라.” 해서 버스를 준비했고, “밴드를 해라.” 해서 밴드를 마련했고 “어린이 합창단 옷은 이렇게 해라.” 해서 또 그대로 했고, “성전은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해서 알곡성전을 지었고, “부속 건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웅장하게 지어라.” 해서 또 웅장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대단히 벅찬 일이지만,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Part 04.*

#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21. 은혜의 다림줄에 대하여 · 22.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 23.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 24. 선악과와 생명의과일(1) · 25. 선악과와 생명의과일(2) · 26. 선악과와 생명의과일(3)

## Chapter 21.

# 은혜의 다림줄에 대하여



인간의 생애는 파란곡절 속에서, 길어야 100년이라는 한 세대를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구 불멸한 세계는 백 년이라는 세월이 한갓 순간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좌우됩니다. 옛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같이 여기고, 눈동자같이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관심하게 되시면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했습니다.(사55:6)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을 살피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 즉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택한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법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또 주셔 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롬9:15) 그것은 모세에게 강조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나는 너의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은혜를 베풀겠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이방인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감람나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여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 밖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섬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섰다고 칩시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가 섭리 밖에서 살았다면 주님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냐?”, “네, 저는 천 구백 몇 년부터 천 구백 몇 년까지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오, 그래? 난 그 시대에 너희들에게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에 천사들이 지상을 살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슌1:10-13)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보신다면 천사가 살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시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보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면 뭐 중간에 천사가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계5:8) 여기서부터 일반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에 차이가 나옵니다.

일반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 역사는 주의 종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일반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의지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2천 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후 2천 년이 지나서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님은 언제나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오늘의 하나님의 종은 오늘의 내막을 주장하게 되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므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세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여러 모로 탄압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도 받을 수 있고, 영의 세계에서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관심하시면 하나님과의 교류는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움직였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에게 주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라.”(마7:22-23)고 말하시게 된다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 천사들이 보고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주 불합당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럼 내가 한 번 직접 가서 보겠다.”(창18:2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보고를 받고 직접 보겠다고 하셨다면, 일반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분들도 내 말은 못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아브

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통고를 하십니다. 왜 통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먼저 통고를 한 다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종 선지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먼저 통고한 다음에 축복을 내리든 저주를 내리든 하겠다.”(암3:7)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느 시대가 됐든,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거나, 혹은 종에게 지시하실 때에는 하나님 위주로 움직이십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람나무 역사를 일으키셨고,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도 받고, 벌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노아의 방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지, 그 일을 노아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싫어도 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걸 하면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고, 따라서 일방적인 행동에 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언약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망가진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철야 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공홀히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헤아려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기꺼이 동참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너는 이러

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 같으면 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신다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피시고 직접 역사하신다면 뭐 천사한테 보고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고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듣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그게 무슨 보고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와서, “총회장님, 그건 이러저러합니다.” 하고 말해 봤자, 그건 보고가 안 됩니다. 내가 모를 때, “여차저차 합니다.” 하면 내가 비로소, “내용이 그렇구나. 알았다.” 할 때 보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얘긴데,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고를 듣고서 “아, 그래?” 하신다면, 직접 보고 계신 겁니까? 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 하는 말은 뭐냐? 직접 보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가 시작될 무렵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먼저 언약과 소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1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10억 중에

여러분은, 속된 말로 새 밭의 팝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1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0만 중의 여러분은 눈에 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혈혈단신일 때, 저 같은 게 무슨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의 피권세를 맡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계2:26, 3:21) 섭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천사의 보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스가라서에 보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다고 했습니다.(속3:9)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계5:6) 하나님이 직접 보신다면, 눈이 뭐 필요합니까? 눈이 일곱이라는 뜻은 완전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되면 새길 것은 새기고, 정할 것은 정하는 겁니다.(속3:9)

또 일곱 눈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여호와로부터 받았을 때에도 나옵니다.(계5:7) 주님이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눈을 가진 것이 돌이니, 주님이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을 이긴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계2:17)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나갔지만, 그런 돌을 주겠다는 약속은 오직 요한 계시록의 이긴자에게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

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살피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눈이 박힌 돌이 일을 할 때에는 하늘에서 천사의 보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직접 보십니다. 돌에 살피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의 다림줄’이라고 합니다.(속4:10) 모두가 비유입니다. 일곱 눈은 하나님과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눈이 있는 곳은 사실상 매일 살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자마자 자동으로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밖에 “누가 왔습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누가 벨을 누르면 “누구시죠?” 하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움직이는 시대가 되면 천사들에게서 일일이 보고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눈 자체가 직접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류가 더디겠습니까? 아주 빠릅니다.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움직임이 하늘에서 바로 보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종이 가게 되면 하늘에서 살핍니다. 성령이 0.1초도 살피시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종에게 와서 안찰을 받으면, 그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에게 기억을 받으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된



지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 오신 바람에 하늘에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일곱 눈이 박혀 있는 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슬하를 떠나면 하늘에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종은 정할 것은 정하고 제할 것은 제합니다. 그 권세를 공식적으로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계2:26)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하고 금하는 것이 법이 됩니다.(요 16:8 참조) 이걸 진리 가운데서 체계가 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일곱 눈이 움직이는 역사에 부름을 받으면 주의 피권세로 이루어 갑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역사다 이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슌4:6) 감람나무의 그늘에 서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반교회에 20년, 30년 힘쓰고 애쓴 목사, 권사는 안 되는 것이라든, 힘도 안 쓰고 애도 안 쓰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됩니다. 누구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자, 이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긴자가 무엇을 갖고 움직이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걸 육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봤자 부딪치는 자만 깨지는 것입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된다면 벌써 나는 추풍낙엽이 됐습니다. 신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 이영수를 귀중하게 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정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러한 섭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면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22.

#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같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얼마나 이 역사를 깊이 깨달아 따르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으로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염소와 양이 섞여 있을 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는 갈라집니다.

신앙에는 연조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마19:30)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몸소 지으신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많은 수모와 학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기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진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겨 주기는커녕 잡아 죽이는 세상입

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죽여 없애려는 세상에 오신 분이데, 세상이 그분을 환대하겠습니까? 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오셔서 움직이는 주님의 발자취가 결코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 가장 놀라웠던 일이 뭐냐 하면,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지녀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근원은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면 주님과 마귀, 이걸로 낙착되고 마는 겁니다. 밑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냐, 마귀냐, 이것으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밑에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빛과 어둠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운동은 주님이 주관하느냐, 마귀가 주관하느냐, 이걸로 결정 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 왜정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조선 사람들끼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떠들어 봤자 결국은 일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모두 일본의 지배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지배자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지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걸로 되고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상 맡아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다 보니 신의 역학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밑에서 어찌고저찌고하는 건 우리의 얘가지, 결판은 빛과 어둠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는 특히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체계를 중요시하여 철저히 심으라고 주의 종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왜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한 감람나무 이긴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람나무 이긴자의 시대가 되면 왜 그런 변혁이 오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열성적인 성도들에 의해 토대가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기초적인 성서 지식으로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줄곧 발전해 온 겁니다. 그 기본 강령으로 삼은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요3:16)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마7:21)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이긴자가 나타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권세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범세계적으로 기독교  
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분들의 기초적인 체  
계에 의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몇 십 억이 되기까  
지 퍼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수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오순절에 마  
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  
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마귀를 발등  
상 시킬 수 없습니다. 지상에 주의 권세를 대행할 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날 그 상태에서 유지되  
는 것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작업이 오순절에 마  
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  
이라면, 여러분은 일반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 되겠는데, 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찌다가 참 운이 좋아서, 감람나무 이긴자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여태까지 주장해 온 기독교의 가르  
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긴자를 앞세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루어지는 기독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계2-3장 참조) 그럼  
하나님이 재래의 것을 왜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이 뭐냐? 마귀를 소탕시켜 만유

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여 찬송을 부르면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물 붓듯 성령이 오고, 생수를 받았다, 이슬을 받았다, 향취를 맡았다 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도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고 저 자신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기억 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앞선 역사에서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 주는 것으로 승부가 끝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자고 주시는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은 마귀를 소탕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 힘을 합쳐서 마귀와 싸우자.” 바로 이겁니다.(계17:14)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독교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이긴자 감람나무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예전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긴자 감람나무 자체가 어둠의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다 보니, 주님은 일단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해다오.” 하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습니다. 2천 년 동안 보수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들 통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내 할 일만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교회가 어떻게 믿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찬양해도 그게 지배하고, 철야하면서 금식기도를 해도 그게 지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까지 성경에는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숭상해 온 훌륭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훌륭한 말씀들이 하루 아침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선지 성인들이나



바울이 한 말 가지고 복을 받게 된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로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쪽이 이단이나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쪽은 교인의 수가 많다 뿐입니다. 주님은 따르는 자가 많아서 이기셨습니까? 진리로 이긴 겁니다.

이 감람나무 역사가 베풀어지면, 그 그늘에 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주님이 당시의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저는 이 역사를 맡아서 시작할 때부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 중에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는 수박 겉핥기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역사가 무슨 일인지 알리도 없고, 따르는 여러분까지도 뭘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를 상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별관을 건축하는 것도 마귀를 상대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복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 받는 건 나중 일입니다. 우선 마귀에게 도

전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그친다면, 마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뉘방을 합니다. 일반교회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마귀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주님의 피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온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이긴자와 더불어서 마귀와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해지면 주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령관이 있어도 부하들이 잘 싸워 주어야 사령관이 빛이 나는 거지, 그 부하들이 약해지면 사령관이 맥을 못 씁니다. 영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순서대로 쳐들어갑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단번에 확 묶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결박하기까지 얼마나 순서가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순서를 거쳐서 마지막에 잡아넣는 겁니다. 마귀를 무찌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천년세계가 지나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등,(계11:7)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등,(계19:11) 또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띤 네 생물 중의 하나가 등장한다는 등,(계15:7) 별 동화 같은 얘기가 많은데, 이게 다 전쟁을 위해서

입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계획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양성해라 이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소중한 겁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격자가 입는 군복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하늘에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세마포 입은 자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19:14) 여기에 ‘백마’ 소리가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의 옷과 다리에 쓴 것을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였습니다.(계19:16)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필요하다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걸 모릅니다. 죽어서 천당 가면 끝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천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걸 알기나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실상이 비로소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전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무너진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세워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재료를 받아, 지상에서 그 작업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긴자입니다. 그 그늘에 들어오신 여러분이지만, 그 깊은 내막을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이긴자로 믿을진대, 그 나머지는 이긴자에게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알팍한 성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는 착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은 잘 알지 몰라도, 이긴자의 신학은 모릅니다. 저도 바울처럼 주님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 말은 바 사명이 다르고,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은 알고 따라야 합니다.

## Chapter 23.

#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계21:1-4)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에덴동산에 복귀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본문은 그

때의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대강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역대의 기독교 신자들도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담대하게 맞서, 공포를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심한 사람이 남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용기를 갖기 위해 마시는 것이 술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던 일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육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 대개 얼굴이 벌게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버립니다. 즉 사색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겹을 잔뜩 집어먹던 120문도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외칠 때, 그들이 술기운으로 열을 받아서 담력이 생긴 것처럼 보여, 성경은 새 술에 취한 사람 같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행2:13)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인간에게 변화를 주신 불과 같은 성령의 내용입니다. 겹을 집어먹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그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행2:3)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하늘에서 힘을 줘야 합니다. 그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냐? 바로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그 불과 같은 성령은 받은 자에게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류가 범죄해서 살아가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구속함을 받아 영원히 사는 세계는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니, 우리가 살던 지상의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신천신지라고 말합니다. 새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에서 흔히 ‘파라다이스’(이상향)라고 해서 화가들이 그림도 그립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윤곽을 비로소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자라야 한다, 그 자격자는 이렇게 배출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수한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요한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만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

는 사람들이 험산준령을 넘으면서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지나야 목적지에 도달하여 큰 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나마 성경에 입각하여 하늘나라를 한 번 그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수많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맨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봤습니다.

계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문이 열려 지상에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순식간에 봉 떠서 하나님께서 계시신 곳에 가서 직접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장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에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각기관의 매개가 없이 어떤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이것을 ‘텔레파시’(telepathy)라고 말합니다. 신은 쉽게 말해서 인간과 텔레파시로 연락을 합니다. 즉 신이 인간과 교류하는 방법은 ‘텔레파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미국의 나사(NASA)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1초에 35리를 가는,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위성을 만들어 화성에 보내면 7개월 반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하루 동안 있다가 돌아와도 14개월 이상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먹고살기에 바쁘니까 관심 밖이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상과학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화성을 탐사하여 지구에 전파를 보내면, 그 전파는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니까 몇 분 안에 지구에 옵니다. 가는 거리는 오래 걸려도 미국의 우주센터(NASA)에서 조작하면, 화성에 간 위성의 기계가 여기서 조작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땅도 파고 사진도 찍어 전송해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 첨단 과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막연하게 생각될 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려면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이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

과 새 땅은 이 태양계에 속한 지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세계에 인간들이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뭐냐? 바로 영이라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생명체가 변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 알곡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쳐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변화한 자기를 거울로 본다면 ‘저기 누워 있는 게 난데,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돌아가시면 압니다. 저는 이상 중에 죽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건 내 영이고, 저건 내 육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늘에서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생명체로 탈바꿈한 영들이 삽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모습이 여기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심판대 앞에 서면 지상에서 살던 세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죄상이 스크린에 짝 펼쳐집니다. 그때 비로소 “옛날에 내

가 저랬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서 기절했습니다.(계1:17)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장로 중의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리라.”(계5:6) 하여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계5:6)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영의 세계에 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지상에서 오래 같이 살아도 50년에 불과하지만, 영의 세계는 세세토록 살기 때문에 50년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어, 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느냐? 아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 저렇게 하면 불합격이라는 커트라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길’이라고 합니다. 육을 가진 우리의 여건으로는 영의 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 수 있는 영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21:2)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상에서 쳐다본 광경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

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계5:12) 여러분 중에 누가 세마포를 입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의 종은 압니다. 인 치는 천사가 통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자마자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이걸 신들끼리 정해진 ‘룰’(규례)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왔다면 이 사람은 음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시면서,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마16: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베드로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한 겁니다.(요 21:19 참조) 다시 말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순교당하지 않고 죽으면 음부로 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시기 위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늘의 따뜻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이 내려다보시는 장면을 보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행7:59) 그 순간 천사가 맞으러 옵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 뭘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세마포를 입고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안내하여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럼 가기 싫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만일 “너 다시 에덴성회에 돌아가서 5별관 지어라.” 하면 “어이구, 싫습니다.” 이럴 겁니다. 누차 말한 대로 이런 자격자가 입는 옷을 세마포라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 Chapter 24.

# 선악과와 생명과일(1)



### 1) 마귀의 도전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 해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는 요한 계시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여러분이 나 귀가 있어 알아듣지,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에덴동산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조상이 살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삶의 출발이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직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얼마동안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체는 흠 아닌 게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달을 무척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가져온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와 비슷한 요소로 만들어져 있음을 오늘날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 역시 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든 없든 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 어디나 하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땅덩이 하나를 놓고 볼 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극히 작은 천체에 불과합니다.

에덴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과일이란 글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과일에는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에덴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겠습니다. 선은 하나님

의 속성이고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마귀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빛의 반대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궁전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출3:14) 모세가 바로 앞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보냈느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습니다.”(출5:1) 하고 대답했더니 바로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바로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신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크게 내립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이렇게 신령한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하고 모세가 자랑하자, 바로가 “그래? 그게 하나님의 신이냐?” 하더니 술객을 불러 명하여 뱀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신하고, 술객을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는 이쪽 뱀이 진짜인지, 저쪽 뱀이 진짜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나에게 다섯 가지 이득을 주고, 바로의 신은 나에게



게 열 가지 이득을 준다면, 이득을 더 많이 주는 신에게, “나는 이편이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경우에 한쪽 신은 인간이 자기편이 되지 않고 다른 신의 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짢을 겁니다. 인간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과 신이 이처럼 대결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신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랑도 받고, 미움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이고 또 신들과의 관계입니다.

에덴동산에는 생명과일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한쪽만 아는 겁니까? 양쪽 다 아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인간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 하나님만 아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도 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에덴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동산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이 에덴동산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승부가 끝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또 다른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천만 명, 1억, 10억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얼 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신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신들끼리 싸우는 틈바구니에 끼어든 겁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신과 신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에덴동산에 생명과일 이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덴동산에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일은 하나님만 알게 하지만, 선악과는 다른 신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알게 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

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과일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냥 뒤서는 안 되겠다.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면 곤란하다.”(창3:22)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신 겁니다. 왜 싫어하시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한 최고의 율법이 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경고입니다. “너, 이걸 먹는 날에는 죽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적대 세력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력에 대해 전지전능하다면 이런 당부가 필요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작부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선악과는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창3:3) 중앙은 변두리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필 중앙에,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나무를 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아담, 하와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중앙의 생명나무에 어떤 다른 세력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어둠의 세력에게 도전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위험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힘에 도전을 받으면서 역사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는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으면 전보다 더 나빠져야 하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로 빚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같으면 요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면, 아무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본래 하나님과 비슷한데다가 선과 악을 함께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뱀, 즉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먹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담, 하와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셨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를 신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먹으라는 측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쪽을 더 의지하여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 쪽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갈라집니다.

에덴동산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습니다.(창3:1) 뱀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뱀을 마귀가 지은 게 아닙니다. 뱀은 아담, 하와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이 아담,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그 짐승의 배후가 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뱀을 꼬여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그 과일을 따먹게 했다면, 그 과일 자체에 이미 아담, 하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주입시켜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공작을 할 수 있는 세력을 막을 수가 있었다면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에덴동산 한복판에 심어 아담, 하와가 먹을 생명과일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로 변하게 한 존재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 인간에게 주의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한 여건에서 사람을 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이걸 먹고 저건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면,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미리 막지 못하고

경고해야 하는 처지였다면, 상대가 어떠한 세력이 됐든 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안 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힘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그 힘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부탁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 “네가 좀 도와줘.”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 개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열한 개의 힘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머지 한 개를 사람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은 신이 인간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하는 역사라면 우리 같은 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 세울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달리 기억하시는 겁니다.

## 2) 빛과 어둠의 싸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는 신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열방 중에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너를 통해 네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창12:1-2) 하나님은 수천만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단독 대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 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투가 계속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부터가 불안한 겁니다. 그게 또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불안한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대 세력을 요한 계시록에는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계12:10)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세력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될 얘기입니다. 이미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시간에 참소하는 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에겐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을 상대하여 움직이실 때에 도와드리는 겁니다.(삿5:23) 일반교회에서 무조건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럼, 주의 종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날 우리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빛의 주인공이신 여호와께서 필요하여 지으신 것이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선악과는 곧 죽음의 열매요, 인간이 그것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성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롬6:23, 요일3:8) 이렇게 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이면의 사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우리에게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나무 중에도 한복판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 열매로 변했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하신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에덴동산의 복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창2:17)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으니(창1:31) 거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은 에덴동산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면서 즐겁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고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라는 또 하나의 생명체를 지어,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창2:23)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 나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만 기적과 은총이 있고, 다른 데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이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마음에 화평을 주고, 병도 고치고 합니다. 다른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28) 그리하여 아담과 같은 자식들을 생육하여 신과 신끼리의 엄청난 전쟁을 위해 전력을 증강한다면, 이로 인하여 타격을 입어야 하는 반대 세력이 이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한사코 막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여 아담, 하와를 품안에 거느리고 에덴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신다면, 아담, 하와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통하여 반대 세력을 까부수려는 전략을 세워 아담, 하와를 번식하고 생육하게 한다면,

적대 세력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적의 심장부를 쳐야 합니다. 외곽을 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날에는 적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적은 이쪽의 심장부를 찌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나무의 열매를 변질시킨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침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장 바라는가, 권세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혹은 이성(異性)인가, 이걸 마귀는 눈여겨봅니다. 그리하여 제일 탐내는 쪽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게 무력한 존재가 되게 하려면, 이들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공략을 해 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택하여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 곳에 악령의 요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에 대한 공작입니다.

그리하여 에덴동산의 중앙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세력이라면, 우습게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침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것처럼 중앙, 곧 심장부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적대 세력이라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어둠의 세력

입니다.(창1:2)

이 어둠의 세력을 기독교는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침투해 들어가서 꺾어 치우는 것이 적대 세력이라면, 오늘날 자기 손아귀에 있는 인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창3:1)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만물을 간교하게 지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간교하다면, 그 뱀을 간교하게 만든 세력이 침투한 겁니다. 흔히들 뱀이 짐승들 중에 간교하게 지으심을 받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과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요소가 침투했고, 가장 사랑 받는 짐승인 뱀에게 간교한 요소가 침투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뱀을 내세워 아담, 하와를 꺾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진다, 먹어 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뱀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짐승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했던 뱀에게, 징그러운 모습으로 기어 다니면서 살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뱀은 변화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눈에 징그러운 뱀이 된 겁니다. 뱀은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사랑하는 동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제 제일 흉악한 동물로 변했던 겁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못 보던 것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서 훼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그 적대 세력이 겨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자의 대결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와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배하든, 다른 신이 지배하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이 어느 신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배하면 하늘나라로, 마귀의 신이 지배하면 음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으심을 받기 전부터 대결하는 양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대 세력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적이라는 것을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시지만, 적대 세력과 겨뤄야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시(戰時)에는 신사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선 살고 봐야 합

니다.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일이 범죄로 일단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종 하나를 내세워서 주의 종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내려는 겁니다. 옛날 아담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을 주의 종이 주의 피권세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시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뜻’(엡1:4-5)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에 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을 조금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의 내용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주님이 그 인을 떼신 것입니다.(계5:8-9)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기독교의 수많은 신도들이 2천 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겨 왔던가를 자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주의 종을 통해서 순서대로 듣지

않고 누가 감히 이해하겠습니까? 일반교회에서 하는 설교 같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여 년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멍해지는 판인데. 하긴 주의 종도 처음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는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에 죽이는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먹으면 죽습니다. 독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독소란 악의 요소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진 겁니다. 어둠에 적응할 수 있는 눈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빛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는 서로 섞이지 못합니다. 어둠에 적응할 수 있는 자는 빛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빛에 적응할 수 있는 자는 어둠의 세계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적응하는 자를 데려갈 수 없고, 마귀는 빛에 적응하는 자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신과 신의 ‘룰’입니다.

## Chapter 25.

### 선악과와 생명과일(2)



#### 1) 이긴자와 생명과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걱정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조건 전지전능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불안한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내 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도 하지 않은 네가 어떻게 깊이 안다는 거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는 곳이 에덴동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고 있는 장소를 청와대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야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전에는 아무도 에덴동산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벗은 줄 몰랐던 사람들이 벗은 줄 알더라고 나와 있습니다.(창3:7) 이것은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유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를 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는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형상이 유전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일을 먹을 때의 생활 방식도 범죄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창3:19) 하시고, 하와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기를 낳을 때에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3:16) 저주가 떨어진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아기를 낳았다면, 오늘날 산모가 겪는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었던 아담, 하와와 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고 변화된 존재를 원래대로 환원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환원시키는 것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행3:21)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들어가는 인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에게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긴자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모조리 뒤집고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줘 먹게 하리라.”(계2:7) 이것이 이긴자와의 첫째 언약입니다.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가 선악과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긴자에게 그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긴자가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걸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쫓겨났던 에덴동산에 수많은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2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난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활까 봐 그룹들이 화염검으로 못 들어오도록 지켰다고 했습니다.(창3:24) 왜 그랬겠습니까? 아담, 하와는 생명

과일에 독소를 넣은 주인공을 닮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 달 가까이 에덴동산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사라져도 내 말은 살아 있게 됩니다.

아담,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 몰랐던 인간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면, 눈동자부터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변해 버렸습니다. 못 보던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은 뇌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럼 아담, 하와는 보는 눈만 변했습니까? 모든 기능이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아담, 하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다시 들어가려면 그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한 그를 다시 옛 아담, 하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변화시키는 주인공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째 아담이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고전14:45)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에덴동산에 들어갈래.” 하고 백 번 외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아담, 하와를 누구의 모습과 가깝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마귀의 요소를 지닌 채 에덴동산에

숨어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못 먹게 막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요일3:8) 그런 아담, 하와에게는 생명과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계2:7, 11, 17, 26, 3:5, 12, 21) 먼저 이긴자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긴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의 이러저러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그는 이긴자입니다. 먼저 이긴자가 되어야만 받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역사는 은총을 물 붓듯 부어 사람을 모아 놓는 시대이지 거두는 시대가 아닌데,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의 열기에 도취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루는 시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역사가 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이나 기성교회나 앞선 역사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계11:5)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생명과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요한 계시록에서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긴자는 선지자나 사도의 대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하겠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일을 하리라.”(요14:12)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피권세로 되는 겁니다. 앞선 역사에서도 증거를 했지만, 주님의 피권세로 주님이 지상에서 못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이긴자에게 충분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 2) 영생의 조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창3:22-23) 여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신학자도 그 깊이를 알 길이 없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아 넘겼던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남을 이롭게 하면 선으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면 악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과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까? 아담, 하와만 살았습니다.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살던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의 선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면 선이고 사람에게 잘못하면 악으로 생각합니다. 즉 선악의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신과 신 사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했다면, 하나님과 같은 식별력이 아담, 하와에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식별력이 하나님에게 유리한 내용을 아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선과 악을 깨닫게 되어도, 하나님에게 이득이 가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귀하게 볼 수 없고, 아담, 하와 역시 하나님이 전과 같이 신뢰가 가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친밀하던 사이가 이처럼 깨지므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쳤던 관계가 서로 등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친밀하던 상태를 갈라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간곡히 당부하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버리고, 아담,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숨고, 이렇게 된 동기가 선악과를 먹은 데 있는 겁니다. 즉 선악과 때문에 양자는 갈라진 겁니다. 이 갈라졌던 양자 사이를 다시 화합하게 하려면, 선악과의 요소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에 대해 별로 유념하지 않았습시다.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 두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쥐 먹게 하겠다(계2:7)고 첫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아담,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인간에게 생명과일을 먹게 해 주겠다는 언약을 최초로 하신 겁니다. 어느 선지자나 사도에게도 생명과일을 쥐 먹게 하겠다고 언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무얼 먹고 살았습니까? 생명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다음에 생명과일을 못 먹게 했습니다.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창3:24)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명예, 권력, 금은보화 등,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 권력, 금은보화도 목숨이 살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금강산이 좋으면 뭐합니까? 음식을 먹고 살아 있어야 볼 것 아닙니까?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마16:26)

지상에서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양식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인 생명과일을 먹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죽게 마련입니다.(시51:5, 롬 6:23) 그러나 아담, 하와가 먹던 생명과일은 영생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동산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죽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일은 죽지 않

는 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죽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 하와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겁니다.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던 아담, 하와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창2:7) 이 생령은 우리처럼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 배설하지 않습니다. 맛만 우리처럼 느낄 뿐입니다. 이것은 이상 중에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이 철벽같은 여호와의 금지령이 주님에 의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막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와 생명과일을 먹을까 봐 화염검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무도 생명과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 인류는 범죄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긴자에게 파격적으로 생명과일을 먹게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긴자에게 제일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중이 가벼운 겁니까? 제일 큼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담, 하와 때 막아 놓았던 울타리를 헐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은총입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봤자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옛날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같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먹게 하는 것은 아담, 하와의 경우와 정 반대입니다. 아담, 하와는 쫓아냈지만, 이긴자는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이는가? 하나님께 유리한 것은 선이라 하고, 불리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유리해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유리한 조건을 드리는 때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조건을 드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만 드리게 되고, 또 드려야 합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긴자는 하나님과 멀었던 존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난 아담, 하와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아담, 하와를 만나는 사람은 그 어둠의 세력을 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긴자를 만나게 되면 그 빛의 세력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도리나 범절로 아무리 비춰 보고 따져 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백 번 떠들어야 선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의 종은 오늘날까지 같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듯이 조금씩 파들어갑니다. 저는 25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반 이상은 체계를 세우기까지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옆치락뒤치락하신 분들입니다. ‘이거 사이비가 아닌가? 잘못 따르는 게 아닌가?’ 별 걱정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다수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의 뇌리 속에서 맴도는 것은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쫓겨났던 생명체들이 다시 들어가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그 먹을 수 있게 하는 주인공부터가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명과일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약속입니다.

## Chapter 26.

### 선악과와 생명과일(3)



#### 1) 악의 발본색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신이 됐든 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선택의 폭이 좁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한 신으로 등장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 가치를 심고자 무던히 노력해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인간이 신에게 부탁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신이 인간에게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신의 도움을 위하여 열심히 매달립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병을 고쳐 주소서, 고시에 합격하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

하면서 신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삿5:23)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뭐 있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거의가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심심해서 아담을 말 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실 때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나, 그 밖의 선지자들을 택하실 때, 언제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지시를 받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매여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휴전선만 없다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마음대로 내왕할 수 있는데, 휴전선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통속 안에서는 못하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못하게 금할 때에는 적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텐동산 안에서 ‘다른 건 다 해도,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면, 에텐동산 자체가 사

실상 모두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반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소위 말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신다면 구태여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죽을 수 있다고 염려하시고, 나중에 쫓아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입니까? 죄짓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당부대로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 아담, 하와에게 더 이상 주의를 줄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아담, 하와를 꺾으려는 여건을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악은 발본색원, 그야말로 뿌리째 뽑아 버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병균과 같습니다. 병균은 한 군데 치료해도 또 다

른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적대 세력을 싹쓸이해야 비로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원인이 있는 한 겉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인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고후2:15)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대적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창조함을 입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창조주께서 우리만 지으셨느냐?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말고도 신령한 생명체를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지만, 나를 가로막는 자가 있었다.”(단10:12)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도우려는 천사가 공중에서 적과 싸웠습니다. 적은 뭐냐? 성경에 ‘바사국군’이라고 했습니다. 바사국군은 바사(페르시아)의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계5:11) 즉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 많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뭐 하는 곳이나?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은 다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뭐 하는 존재며,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지으심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창2:7)고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시키고자 지금 하늘에서는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지으시고, 따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분야입니다. 그 한 분야에 불과한 인간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간의 수는 천사처럼 천천이요 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지파인데,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대로 후손이 번성했다면, 14만 4천은 진작 배출되어 어둠의 세력과의 승부는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그중에서 순교자를 골라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려고 하신 겁니다.(계20:4 참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14만 4천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하늘나라에 가서서 사도 요한에게, 이 수가 필요하다, 이 수가 있어야 한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상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계5:8) 그 하늘 군병을 채우는 작업을 이제 하나님 대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동산에서 사는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14만 4천의 신령한 후손을 배출시키라는 겁니다. 에덴동산 안의 14만 4천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에덴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입니다.(계21:2)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

만 4천이 성안에 들어가고(계14:3) 이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계22:4)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계13:8) 에덴동산에서 살 수 있는 하늘 군병 14만 4천을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은 사실상 이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옛날 죄짓기 전의 아담과 같은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에덴동산에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있는데, 전자는 먹으면 영생하고, 후자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과일은 누가 됐든, 먹으면 무조건 사는 과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따먹어도 영생합니다.(창3:22)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주께서 이긴자에게 제일 먼저 한 약속이 생명과일을 주겠다는 겁니다.(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 봤자 안 믿어지면 돼 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입니다. 논란만 일어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최고의 극비 처방을 쓰신 겁니다. 더 이상의 처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속된 말로 새 발의 땀입니다. 그런데 사람



들이 그 깊은 내막을 모른다 이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필요했던 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하고 만드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 2)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는 따먹지 말라는 과일이 에덴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산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지으신 것은 아담, 하와를 행복하게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아담, 하와가 가장 손대기 쉬운 동산 한가운데에, 먹으면 죽어야 하는 과일이 나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치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먹으면 죽게 되는 과일이 나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먹으면 죽어야 하는 과일을 하나님이 왜 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이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는 동기는 이들이 대단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가 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크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성교회가 부딪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마귀가 침투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동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영광을 받고자 사람을 지었노라.”(사43:7)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아담,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소임을 타고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뜻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를 침범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마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가만두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침범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무찌르려고 아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어떻게 꾀든 간에, 상대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이런 존재에게 침범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교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결별을 시키려고 공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깐 간단한데, 전쟁을 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덮어놓고 천당 갈 줄 아는 교인들은 이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사람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과 신의 대결은 ‘너는 너, 나는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쪽이 저쪽을 집어삼키려고 하든가, 저쪽이 이쪽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로 싸운 기록이 성경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3:15) 이걸 평화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전쟁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전쟁을 가르치는 기독교 단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 공존이고, 만사형통이고,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가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목자는 저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한 번 뒤져 보십시오. 마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처단하기 위해 아담, 하와를 지으셨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뱀이 아담, 하와를 꼬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는 마귀의 공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옛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계20:2) 옛 뱀이란 옛날 인간의 조상을 꼬여 낸 뱀을 가리키며, 이 뱀이 곧 사단이요, 용이다 이겁니다. 즉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요한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 아담, 하와를 꼬여서 마귀의 밥이 되게 했다면, 그 후손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마귀의 손에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품에 있던 것도 빼앗아간 마귀인데, 마귀의 품에 있는 인간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어느나 하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슬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 내시기 위해, 그토록 아끼고 아끼시던 독생자를 비참하게 죽여서까지 사람을 빼앗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